의료광고심의필 : 제201028-중-113187호

광고

공단검진은 공단역에서

(조감도)

찾아오시는 길 3호선 공단역 앞

진료시간

평 일 : 08:00~16:30
토요일 : 08:00~11:30

1호선 환승 [명덕역] ⇒ 3호선 [공단역]
2호선 환승 [청라언덕역] ⇒ 3호선 [공단역]

527, 708, 719, 724, 726, 730, 750, 200, 250, 251-1, 300, 북구1, 북구4, 칠곡2

MEDI CHECK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대구북구] 전화예약 053)350-9000

푸른신문

2020년 11월 26일 목요일 제1,146호

창간 : 2000년 10월 31일 / 주간 T.053)572-6000

세무사 정수득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정 수 득 H.P 010-8773-3910
양도소득세 등 조세컨설팅, 신속중개
매물항상접수, 공동중개 환영
등록번호 27290-2020-00170
T.053-568-4600 F.053-568-4601

달서 · 달성 지역신문
www.prsinmun.co.kr

성서최고의 휘트니스클럽
미과 SPOLEX MIGWANGSPOLEX
헬스 / 스쿼시 / 골프 / 유도
최고 시설의 사우나 / 탁구센터
본관. 053)593-9990~7
신관, 골프장&스크린골프 : 053) 584-0775

헬스 연간회원 댄스 · 요가 · 필라테스 · 스피닝 무료수강!
사우나 헬스 100% 참나무 참숯가마
24시간 골프 연습장 스크린
휴림원 300대 주차장 완비! ☎585-0100
대실역 2번 출구 대백마트 뒷편

포장이사 전문업체 · 보증보험가입업체
효성익스프레스
항상 우리집을 이사한다는 마음으로 일해오고있습니다
무료전화 080-7824-080
대표전화 521-7824,635-7824
달서점 654-7824 수성점 794-7824 북구점 355-7824
논공점 611-7824 화원점 639-7824 남구점 473-7824

지면안내

지역	03~9면
고령	12면
성주	13면
지역사랑 파트너	15면
종합	16~19면
기고	20~21면
교육	23~25면
문화	26~27면
건강	29면
운세·날씨	30면
퍼즐	31면

주차난 해소! 공영주차장 대폭 조성

달서구, 수밭동주차장 무료 개방

달서구(구청장 이태훈)는 수밭동(東)주차장을 조성하여 19일부터 주민들에게 무료개방했다.

달서구는 도원지를 방문하는 시민들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43억 8천만 원을 투입해 지난 6월에 월광주차장(79면), 11월에는 수밭동(東)주차장(65면)을 조성했다. 또한, 신도심지역인 대곡동 주택 및 상가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지난 6월, 1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새각단주차장을 주민들에게 개방했다.

달서구는 특히 민간부설 주차장을 개방 · 공유하는 '이웃과 함께하는 주차장 공유사업'을 통해 대구전자공고 등 6개소 127면, 공한지 임시주차장 조성 사업으로 2개소 71면을 조성 개방해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에 노력했다.

내년에는 18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진천동 등 5개소, 453면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진천동 월배복합센터 공영주차장 250면, 도원동 수밭5호 공영주차장 50면, 용산2동 마을단위 공영주차장 18면, 대곡동 한실마을 GB지역 공영주차장 80면, 대천동 선사문화체험관 공영주차장 55면 등이다.

이태훈 구청장은 "이번 수밭동주차장 조성으로 월광수변공원을 방문하는 주민들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마을단위 공영주차장 조성, 이웃과 함께하는 주차장 공유사업 등을 통해 주차문제를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달서구청>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달서

도시생태복원 25+ MOU 체결

달서구(구청장 이태훈)는 19일 한강홍수통제소 대회의실에서 8개 지방자치단체,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 한국생태복원협회와 '도시생태복원 25+'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환경부가 주관하여 그린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생태복원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이루어졌다. 협약식에는 조명래 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정원재 달서구 부구청장과 관계 기관장들이 참석했다.

달서구는 지난 9월 8일 도원지(월광수변공원)에서 달성습지를 연결하는 진천천의 생태통로서의 역할을 회복하고 도원지, 월곡지 수달, 도룡뇽, 반딧불이 등 구의 생태자산 복원을 위한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었다. 사업비는 국비 35억 원을 포함해 총 50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이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달서구는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 한국생태복원협회의 기술자문을 받게 되며, 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민, 시민단체, 전문가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도시생태복원사업 방향과 내용에 대해 적극 소통할 계획이다.

이태훈 구청장은 "앞으로 달서구의 생태자산을 보존하고 지켜갈 수 있도록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함으로써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고 다양한 생명이 숨쉬는 살기좋은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변점식 기자

CS 푸른방송 GREEN CABLE TELEVISION STATION

명품화질로 선명하게 즐기는

푸른방송 채널 편성표

우리지역 대표채널 No.1
푸른방송 Ch.1

HD국민형방송 채널표

※2020. 09. 14 기준

번호	채널명	장르
1-1	푸른방송	지역채널
2-1	EBS플러스1	교육
3-1	EBS플러스2	교육
5-1	tvN	오락
6-1	EBS	지상파
6-2	EBS2	지상파
7-1	KBS2	지상파
8-1	CJ오쇼핑	홈쇼핑
9-1	KBS1	지상파
10-1	롯데홈쇼핑	홈쇼핑
11-1	MBC	지상파
12-1	GS SHOP	홈쇼핑
13-1	TBC/SBS	지상파
14-1	NS홈쇼핑	홈쇼핑
15-1	현대홈쇼핑	홈쇼핑
16-1	홈앤쇼핑	홈쇼핑
17-1	JTBC	종편
18-1	채널A	종편
19-1	TV조선	종편
20-1	MBN	종편
21-1	공영쇼핑	홈쇼핑
22-1	SBS CNBC	경제
23-1	연합뉴스TV	보도
24-1	YTN	보도
25-1	한국경제TV	경제
26-1	MBC에브리원	오락
26-2	MBC ON	오락
27-1	Mnet	음악
27-2	채널DIA	오락
28-1	코미디TV	오락
29-1	XtvN	오락
30-1	스크린	영화
30-2	인디필름	영화
31-1	OCN	영화
32-1	OCN무비즈	영화
32-2	Mplex	영화
33-1	CNTV	드라마
34-1	K Star	오락
35-1	하이라이트TV	오락
36-1	JTBC2	오락
36-2	JTBC4	여성
37-1	CMCTV	오락
37-2	채널이엠	오락
38-1	KBS JOY	오락
39-1	디원	오락
39-2	Fun TV	오락
40-1	SBS플러스	오락
41-1	드라맥스	드라마
42-1	KBS드라마	드라마
43-1	MBC드라마넷	드라마
44-1	JTBC골프	스포츠
45-1	SBS스포츠	스포츠
45-2	SBS골프	스포츠
46-1	KBSN Sports	스포츠
46-2	SPOTV	스포츠
47-1	MBC스포츠+	스포츠
48-1	스카이스포츠	스포츠
49-1	FTV	취미
50-1	투니버스	키즈/만화
51-1	JEI재능TV	키즈/만화
52-1	챔프	키즈/만화
52-2	애니맥스	키즈/만화
53-1	애니박스	키즈/만화
54-1	O tvN	여성
54-2	OGN	게임
55-1	리얼TV	오락
56-1	채널차이나	해외드라마
57-1	내셔널지오그래픽	해외다큐
58-1	SBS funE	오락
59-1	온스타일	여성
60-1	EDGE TV	오락
61-1	KBS W	여성
62-1	올리브	여성
63-1	아이넷	음악
64-1	이벤트TV	음악
65-1	GTV	여성
65-2	SBS MTV	음악
66-1	OCN스릴즈	영화
67-1	MBC M	음악
68-1	상생방송	종교
69-1	BTN불교TV	종교
70-1	가톨릭평화방송	종교
71-1	CTS기독교TV	종교
71-2	CBS	종교
72-1	한국직업방송	공익
73-1	복지TV	공익
74-1	사이언스TV	공익
95-1	OUN	공익
96-1	국회방송	공익
97-1	KTV	공익

디지털케이블방송 채널표

※E : 이코노미(112) / B : 베이직(180) / P : 프리미엄(195) / 유료 : 유료채널(10)

상품	번호	채널명	장르
E	0	케이블 TV VOD HD	가이드
E	1	푸른방송	지역채널
E	2	EBS2 HD	지상파
B	3	MBC에브리원 HD	오락
E	4	쇼핑엔티 HD	홈쇼핑
E	5	TBC/SBS HD	지상파
E	6	GS SHOP HD	홈쇼핑
E	7	KBS2 HD	지상파
E	8	CJ오쇼핑 HD	홈쇼핑
E	9	KBS1 HD	지상파
E	10	롯데홈쇼핑 HD	홈쇼핑
E	11	MBC HD	지상파
E	12	NS홈쇼핑 HD	홈쇼핑
E	13	현대홈쇼핑 HD	
E	14	JTBC HD	종편
E	15	EBS HD	지상파
E	16	MBN HD	종편
E	17	홈앤쇼핑 HD	홈쇼핑
E	18	채널A HD	종편
E	19	TV조선 HD	
E	20	tvN HD	오락
E	21	공영쇼핑 HD	홈쇼핑
E	22	신세계쇼핑 HD	
E	23	연합뉴스TV HD	보도
E	24	YTN HD	
E	25	OCN HD	영화
E	26	XtvN HD	오락
E	27	Mnet HD	음악
E	28	드라맥스 HD	드라마
E	29	E채널 HD	오락
E	30	OCN무비즈 HD	영화
유료	31	캐치온1 HD	
E	32	OCN스릴즈 HD	
E	33	O tvn HD	여성
E	34	스크린 HD	영화
E	35	채널DIA HD	오락
B	36	AXN HD	영화
B	37	Mplex HD	
E	39	SBS플러스 HD	오락
E	40	K쇼핑 HD	홈쇼핑
E	41	KBS드라마 HD	드라마
E	42	W쇼핑 HD	홈쇼핑
E	43	MBC드라마넷 HD	드라마
B	44	JTBC2 HD	오락
E	45	SK stoa HD	홈쇼핑
B	46	드라마큐브 HD	드라마
E	48	올리브 HD	여성
E	49	온스타일 HD	
B	50	JTBC4 HD	
E	51	CNTV HD	드라마
E	52	드라마H HD	
B	53	디원	오락
B	54	티브이조선2 HD	정보
B	55	채널A플러스 HD	정보
B	56	MBN플러스 HD	
B	57	CMCTV HD	오락
B	58	하이라이트TV HD	
B	59	SKY HD	드라마
B	60	KBS JOY HD	오락
B	61	씨네프 HD	영화
B	62	SBS funE HD	오락
E	63	K Star HD	오락
B	64	Fun TV HD	오락
B	65	GTV HD	여성
E	66	리얼TV HD	오락
E	67	OBS W HD	교양
E	68	EDGE TV HD	오락
B	69	KBS W HD	여성
E	70	트렌디 HD	
B	71	NQQ HD	오락
E	72	패션엔 HD	여성
E	73	MBC ON HD	오락
E	74	ONT HD	
E	75	ONCE HD	취미
유료	77	캐치온2 HD	영화
B	78	인디필름 HD	
B	79	더무비 HD	
B	80	SBS CNBC HD	경제
E	81	MTN HD	
B	83	토마토TV HD	
E	84	한국경제TV HD	
B	87	넷지오와일드 HD	다큐
E	88	넷지오피플 HD	
E	89	내셔널지오그래픽 HD	
B	90	다큐원 HD	
B	91	OLIFE HD	취미
B	92	SBS F!L HD	오락
B	93	채널 뷰 HD	
B	94	FOX채널 HD	
B	96	채널이엠 HD	
E	97	청춘시대TV HD	가이드
E	98	씨네플러스 HD	영화
E	99	뉴트로TV HD	시니어
B	100	아이넷라이프 HD	
유료	103	플레이보이TV HD	성인
유료	104	허니TV HD	
유료	105	미드나잇 HD	
유료	106	비키 HD	
B	108	큐브TV HD	음악
B	109	SBS MTV HD	
E	110	MBC M HD	
E	111	아이넷 HD	
E	112	이벤트TV HD	
E	113	GMTV	
E	114	KTV	공공
B	115	바둑TV HD	취미
B	116	K바둑 HD	
B	117	FTV HD	
B	118	Fishing TV HD	
P	119	빌리어즈TV HD	
E	121	채널차이나 HD	해외드라마
E	122	중화TV HD	
B	123	채널J HD	
E	124	채널정 HD	
E	125	텔레노벨라 HD	오락
B	127	HQ+ HD	
B	129	Life U HD	
B	130	히스토리 HD	
B	131	실버아이 HD	교양
P	132	예술TV Arte HD	
P	133	FX HD	오락
B	134	코미디TV	
P	135	EtN연예	
E	136	FOXlife HD	
E	137	TV아시아플러스 HD	
E	139	OGN HD	게임
E	140	STATV HD	
E	141	SBS스포츠 HD	스포츠
E	142	KBSN Sports HD	
E	143	MBC스포츠+ HD	
B	144	SBS골프 HD	
B	145	JTBC골프 HD	
B	146	JTBC GOLF&SPORTS HD	
E	147	스카이스포츠 HD	
B	148	IB Sports HD	
E	149	SPOTV HD	
E	150	SPOTV 2 HD	
E	151	SPOTV Golf&Health HD	
유료	152	SPOTV ON HD	
유료	153	SPOTV ON2 HD	
E	155	BTN불교TV HD	종교
E	156	BBS불교방송	
E	157	CBS HD	
E	158	CTS기독교TV HD	
P	159	CGN TV	
P	160	GOODTV	
E	161	가톨릭평화방송	
B	162	상생방송	
P	163	C Channel	
P	167	동아TV	여성
E	168	육아방송	
B	169	이엑스에프 플러스	오락
E	170	Lifetime	
B	171	헬스메디	정보
유료	174	잉글리시챔 HD	키즈/교육
B	175	디즈니채널 HD	키즈/만화
E	176	투니버스 HD	
B	177	애니맥스	
B	178	Baby TV HD	
B	179	KBS Kids HD	키즈/만화
E	180	어린이TV HD	
B	181	애니플러스 HD	
B	182	애니박스 HD	
E	183	JEI재능TV HD	
E	184	카툰네트워크 HD	
B	185	챔프 HD	
E	186	부메랑	
E	187	Nickelodeon	
유료	190	DOG TV HD	취미
E	191	브레인TV	
B	192	마운틴TV	
B	193	생활체육TV	
P	194	COOK TV HD	
E	204	서울경제TV	경제
B	205	이데일리	
B	206	팍스경제TV	
B	207	매일경제TV	
P	209	YTN라이프 HD	정보
B	210	소상공인방송	
B	211	폴라리스TV	
B	212	쿠키건강TV	
B	213	TBS교통방송	
P	214	MBC NET	
E	215	리빙TV	
E	216	메디컬TV	
E	217	복지TV	
E	218	사이언스TV	
P	219	채널i HD	
E	222	국방TV	
E	223	국회방송	
P	225	한국직업방송	
P	226	한국농업방송	
B	227	소비자TV	
E	230	CNN International HD	해외채널
E	231	아리랑TV	
E	232	NHK WORLD PREMIUM	
E	233	Bloomberg	
E	234	CGTN	
E	235	CCTV 4	
E	240	EBS플러스1	교육
E	241	EBS플러스2	
E	242	EBS잉글리시	
E	244	JEI EnglishTV	
P	245	위티브이	
E	246	OUN	

※UHD상품은 별도 상품가입 및 셋탑박스 설치 후 시청가능.

UHD	200	UMAX UHD	오락
UHD	201	UXN UHD	

※채널상품 및 번호는 관계법령과 방송사 정황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가입문의 551-2000 www.gcs.co.kr

도시재생 마을전시회 둘러보세요~

달서구, 도시재생 마을 전시회 개최

달서구(구청장 이태훈)는 11월 20, 27일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진행 중인 죽전동과 송현동에서 그간 추진해 온 주민참여프로그램 결과 공유를 위한 '도시재생 마을 마을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먼저, '죽이척척 죽전동 마을전시회'가 지난 20일 11시부터 춘추어린이공원에서 진행됐다.

죽전동 도시재생뉴딜사업 홍보, 마을주민이 직접 촬영한 마을사진전, 달그락교실을 통해 직접 제작한 생활작품 전시와 비대면 생활문화재료 홍보 및 배부로 행사를 진행했다.

또한, '송현동 든들마을 전시회'가 27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송현동 든들마을 네모주차장, 세모주차장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송현동의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대해 소개하고, 마을곳곳을 촬영한 마을엽서 사진전과 생활예술프로그램에 참여한 주민들 활동사진과 결과물 등을 전시할 계획이다.

이번에 전시하는 마을사진과 생활공예 작품들은 지난 6개월간 사회적거리 지키기에 동참하며 주민들이 참여해 만든 활동 결과물이다.

당초 주민이 기획하고 운영하는 '마을축제'를 계획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마을축제 대신 마을전시회로 운영한다.

죽전동 도시재생 마을전시회 개최 (11.20.)

죽전동과 송현동에서는 지난 6월부터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내용으로 '도시재생대학'과 '생활예술학교 달그락 교실' 등을 운영해 왔다.

이태훈 구청장은 "이번 마을전시회를 통해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나 관심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자료제공:달서구청>

김장철 음식쓰레기 깔끔하게 분리수거

본격적인 김장철로 접어들었다.

일년 동안 든든한 밑반찬이 되는 김장김치 담기도 힘들지만 음식물 쓰레기 또한 버리기가 만만치가 않다. 음식물 쓰레기에 넣어야 할지 종량제 봉투를 사용할지 헷갈릴 때도 있다. 달서구청은 김장 쓰레기 배출 방법을 안내했다.

음식물 쓰레기로 분류되는 것은 흙이 묻지 않은 배추, 무, 염분을 제거한 젓갈류 등이 있고 음식물 이면서 일반쓰레기로 분류해서 종량제 봉투를 사용해야 하는 것은 흙이 묻어 있는 채소들이다. 일반주택에서는 김장철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발생할 경우, 전용수거용기와 함께 규격 외 용기에 담아 납부 필증을 부착 후 배출하면 된다. 채소류는 잘게 썰어서 부피를 최대한 줄이고 물기를 꽉 짜서 수분을 제거한 다음 배출해야 한다.

음식물 쓰레기가 아닌 것은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배출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메추리알이나 달걀껍데기, 파인애플처럼 딱딱한 과일 껍질, 조개껍데기, 생선뼈, 옥수수대, 마늘껍질 등이 있고 1회용 티백, 사골뼈, 독성이 있는 물질도 종량제 봉투를 사용해서 배출해야 한다. 음식물을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또, 김장 쓰레기를 최대한 줄일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 시장 보기 전에 꼼꼼하게 메모해 두었다가 적당량만 구입하고 불필요한 재료를 사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하면 김장 비용도 줄일 수 있어 일석이조가 된다. 조금씩 남은 배추나 무 등은 된장국을 끓이거나 무침으로 활용하고 당근이나 양파는 달걀말이에 넣으면 색깔도 예쁘고 영양도 배가 된다. 또, 부추나 잔파 같은 채소는 전으로 만들어 간식으로 활용해 보자.

김장 쓰레기 집중 수거 기간은 11월16일부터 12월20일까지 이고 일반주택 및 사업장은 전날 밤8시 부터 익일 새벽 2시까지이다. 아파트는 이전과 같은 방법으로 수거하고 있다. 궁금한 사항은 달서구청소과 재활용팀(☎053-667-2726)으로 문의하면 된다.

달서구청 김장철
음식물쓰레기 배출안내문

이윤영 객원기자

광고는 해야하는데
비용이 걱정 되신다고요?

여기 푸른신문이 있습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신문과 케이블방송 광고 모두 해결해 드립니다.

+ 푸른신문 광고의 장점

응통성 _ 지면 크기, 위치 선택이 자유롭고 가격대 다양 적시성 _ 필요한 시점에 적합한 내용으로 광고 가능
정보성 _ 광고 상품에 대한 상세한 정보전달 카탈로그성 _ 쇼핑안내 및 행사 안내
우수한 독자층 _ 가정, 직장에서 회람 가능, 광고 열독률 높음.

광고문의 053-572-6000

맑은마음 밝은 신문! 60만 달서구·달성군민의 신문!

사람과 동물의 아름다운 공존

달서구, 반려동물놀이터 조성 기본구상 용역 보고

달서구(구청장 이태훈)는 18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사람과 동물이 함께 공존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동물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달서구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 보고회를 개최했다.

지난 8월 13일부터 9월 24일까지 지역 내 후보지 검토와 대상지 분석, 현장조사를 거친 용역계획안에 대해 대구시와 사전협의 및 관련부서 검토의견을 반영하고 주민 여론수렴, 동물전문가와 공원조성계획 변경 및 타시도 반려동물시설 운영관계자 등의 자문을 구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번 보고회를 통해 녹지훼손, 묘지이장 문제 등의 이유로 수십 년 동안 개발하지 못한 지역의 장기미집행 장동공원을 새롭게 정비하여 공단근로자를 포함한 주민 모두가 즐겨 찾는 명품공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용역(안)에 따르면, 반려동물 놀이터는 성서산업단지내 장동공원 남측인 장동 산 28번지 일원 3,700㎡ 규모의 놀이터 시설에 조성될 예정이며, 소형 및 중·대형견 공간분리를 위한 경계휀스 및 보호자 쉼터 설치, 반려견 놀이시설, 진입로 개설, 관리사무소 등 기반시설 설치, 산책로 조성, 묘지이장 등에 약 17억 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달서구는 반려인구 1,000만 시대를 맞아 생명존중 문화의 확산은 물론 관련 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 등에 부응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 조례' 제정(2019. 4월), 동물관리 전담팀 신설(2020. 1월), 동물복지 5개년 계획수립(2020. 9월), 동물복지위원회 구성(2020. 10월),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위촉(2020. 11월) 등 반려동물과 더불어 살아가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태훈 구청장은 "1인 가구 증가와 저출산 등으로 반려동물을 가족 구성원으로 생각하는 새로운 여가문화가 조성되고 있고 동물에 대한 인식에도 많은 변화가 있다"면서, "반려동물산업 성장에 발맞추어 대구지역 최초 반려동물놀이터를 조성하여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변점식 기자

몸에 좋은 '새싹보리' 직접 키워 먹어요~

코로나로 인해 집안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심신이 지칠 수 있는데 오늘은 몸에 좋고 키우는 재미도 좋은 새싹보리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새싹보리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거친 보리와 다르게 부드럽고 푸른 보리의 어린 새싹이다. 보리를 발아시켜서 난 새싹을 먹는 건데 효능은 7cm로 자랐을 때가 가장 좋다고 한다.

키우는 방법도 쉽고 간단하다. 먼저 씨앗 준비하기. 보리씨앗은 채소용 씨앗이 아닌 새싹용 씨앗으로 준비한다(채소용 씨앗은 소독이 되어 있어 새싹으로 먹으면 안됨)

8시간 정도 물에 불렸다가 바닥이 넓은 소쿠리나 그릇에 고루 펴 주면 되는데 새싹보리가 인기가 있다 보니 전용 육묘판도 시중에 나와 있다. 수시로 물을 뿌려 주면 크는 게 눈에 보일 정도로 성장속도가 빠르다. 요즘 같은 날씨에는 이틀 정도면 발아한다. 약 일주일 정도 지나면 먹을 수 있을 수 있을 만큼 자란다. 사진의 새싹보리는 딱 일주일 된 모습이다.

수확은 가위로 잘라주면 되고 다시 싹이 나서 또 먹을 수 있지만 초벌보다는 좀 질겨지고 맛이 떨어지므로 샐러드용은 한번만 재배해서 먹기를 추천한다.

새싹보리는 시금치보다 칼륨은 18배, 비타민C는 3배나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알려져 성장기 어린이에게 좋다. 또한 항산화 물질인 폴리코사놀 성분이 많아 혈관 청소부인 좋은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킴으로써 고혈압, 동맥경화, 고지혈증 등 혈관 질환을 예방한다.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좋다고 하니 꾸준히 복용하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

먹는 방법은 샐러드로 먹는 게 가장 쉽고 영양소 파괴도 적다. 색감이 다른 채소와 적절하게 섞어서 드레싱을 뿌리면 영양가 만점, 근사한 요리가 뚝딱 만들어진다. 건조 후 분말을 내어 우유나 요구르트에 섞어 먹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하루가 다르게 쑥쑥 커서 키우는 재미도 좋고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는 새싹보리, 슬기로운 집콕생활 아이템으로 적극 추천한다.

서순옥 객원기자

우리동네 구석구석, 크고 작은 소식들이 살아 있는 곳!
지역민을 위한 푸른방송 ch1

달서구 세 번째 공공스포츠클럽 탄생

(가칭)성서스포츠클럽 2020년 스포츠클럽 공모사업 선정

달서구(구청장 이태훈)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에서 주관한 2020년 공공스포츠클럽 공모사업에 '(가칭) 성서스포츠클럽'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난 8월 26일부터 10월 16일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체육단체, 학교 등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한 사업에 달서구는 대구시수영연맹과 함께 학교연계형(수영종목)으로 신청하여 지난 13일 대한체육회 최종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성서스포츠클럽은 올해 12월부터 성서국민체육센터 내 수영장을 거점시설로 하여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전 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수영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전문선수도 육성하게 되며, 향후 5년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국비 4억 원, 달서구로부터 1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게 된다.

공공스포츠클럽 육성사업은 지역의 공공·학교체육시설을 거점으로 해 모든 주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체육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13년부터 정부의 역점 체육정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2020년 현재 전국에 124개의 공공스포츠클럽이 운영 중에 있다.

달서구는 지난 2015년 달서스포츠클럽, 2019년 달서송현스포츠클럽에 이어 이번에 성서스포츠클럽이 선정됨으로써 전국 기초 지자체 중 가장 많은 3개(종합형 2, 학교연계형 1)의 공공 스포츠클럽을 운영하게 되어 명실상부 명품 스포츠도시로서 주민맞춤형 체육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태훈 구청장은 "앞으로도 공공스포츠클럽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생활체육·학교체육·전문체육이 균형있게 발전하는 한편 스포츠를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달서구청>

35세대 물고기 정원 체험 세트 지원

월성2동, '나만의 작은 물고기 정원'

달서구 월성2동(동장 오성현)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최안집)에서 지난 17일 코로나19로 인해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저소득 모자가정 35세대에 물고기와 공기정화 식물을 직접 만들어 키우는 물고기 정원 세트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나만의 작은 물고기 정원' 사업은 월성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2020년 투게더 문화공동체사업 보조금으로 저소득층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문화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 추진했다.

집안에서 초보자도 쉽게 만들고 키울 수 있는 어항과 물고기, 공기정화식물, 수초 등 풀세트를 지원하여 가족 간의 소중한 추억을 만들고 건강한 가정생활과 정서적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 기획됐다.

직접 만들고 키우는 재미와 각종 복지소식들을 월성2동 행정복지센터 채널에 공유하여 이웃 간의 화합과 복지정보제공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최안집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현장에서 할 수 있는 문화체험이 어려워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면서, "앞으로도 행복한 마을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달서구청>

낙동강 자연환경보호 업무협약

달성군시설관리공단&시민구조봉사단

달성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순환)과 시민구조봉사단(단장 고재극)은 지난 18일 사문진 역사공원에서 낙동강 자연보호활동 수행을 위한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달성군시설관리공단 공원관리팀에서 운영하는 수상 시설과 낙동강 생태탐방로 주변 낙동강 자연환경보호 활동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상호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체결됐다.

달성군시설관리공단은 사문진 나루터에서 유람선 등 수상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구조봉사단은 달성습지 환경정화 활동을 하고 있어 이번 협약체결로 인력 및 선박의 상호지원으로 낙동강 주변 환경보호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시너지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

강순환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낙동강 환경보호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갖게 될 것"이라며 "영남의 젖줄인 낙동강의 환경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달성군시설관리공단>

달서구 취업노크 대구서부고용센터

관리·사무직

사업체명	모집직종	학력	임금
신일폴리텍 053-591-6330	생산·품질 사무원 및 관리원 (기계·자동차·금속)	고졸 이상	연 2,800~3,500만 원
(주)대정오텍 053-588-3795	생산·품질 사무원 및 관리원 (기계·자동차·금속)	무관	월 240~300만 원 (상여 200%)
(주)수성 053-592-0507	생산·품질 사무원 및 관리원 (건설)	무관	연 2,442만 원 이상
(주)청한테스타일 053-588-6035	생산·품질 사무원 및 관리원 (화학·섬유·의료)	전문대졸 이상	월 200만 원 이상 (상여 200%)
(주)수성자원 053-592-8081	단순 경리 사무원	고졸 이상	월 180만 원 이상 (상여 100%)

기술 기능직

사업체명	모집직종	학력	임금
이에스기초건설 053-744-5173	용접원	무관	월 250만 원 (상여 100%)
주식회사 에스에스이티 053-583-3511	자동차 부품 조립·검사원	무관	시급 8,590원 이상
(주)성종합철강 053-341-8805	톱기계 조작원	무관	연 3,000만 원 이상
한민테크 053-232-8829	CNC 선반 조작원 (NC 선반 조작원)	무관	시급 8,590원 이상
(주)우주엔바텍 053-592-0590	기타 공업기계 설치·정비원	고졸 이상	연 3,000만 원 이상 (상여 40%)

단순 생산직

사업체명	모집직종	학력	임금
(주)대영알엔티 053-355-3330	제조 단순 종사원	무관	시급 8,590원 이상
주식회사 대흥분체산업 053-588-4069	제조 단순 종사원	무관	시급 8,590원 이상
(주)이상플랜트 053-761-8844	제조 단순 종사원	무관	연 2,400만 원 이상
장민섬유 053-591-9070	섬유·의복 분야 단순 종사원	무관	시급 8,590원 이상
태양산업사 053-586-7708	화학·환경·에너지 분야 단순 종사원	무관	시급 8,590원 이상

영업(판매), 운전배송직

사업체명	모집직종	학력	임금
제이와이 053-585-0873	견인차·유조차·구난차·청소차 등 특수차 운전원	무관	연 3,600~4,000만 원
이안테크 053-719-0659	하역·적재 종사원	무관	월 230~250만 원 (상여 100%)
한빛축산 053-633-8179	배송·납품 운전원 (납품영업 포함)	고졸 이상	시급 8,590원 이상
(주)세관제일 070-4282-0158	배송·납품 운전원 (납품영업 포함)	고졸 이상	월 220~230만 원

※ 문의: 대구서부고용센터 053)605-6508 www.work.go.kr/daegusebu

선사시대로(路)의 인연, 결혼으로 이어지기를…

달서구 '선남선녀 커플링(coupling) 선사(先史)데이트' 개최

달서구(구청장 이태훈)는 21일 관내 카페에서 미혼남녀 20명을 대상으로 '커플링 선사데이트'를 개최했다.

'커플링 선사데이트'는 크리스마스를 함께 보낼 연인을 찾고 있는 미혼남녀들에게 유익한 만남 기회를 제공하여 건전한 데이트와 결혼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행사는 지역의 대표 관광자원인 '선사시대로'와 연계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커플 움집 만들기, 선사시대 인증샷 미션 등 처음해 보는 프로그램들을 즐겼으며, 참가자들은 로테이션 대화, 장기자랑 등 즐거운 가을 데이트를 통해 자신에게 어울리는 이상형을 찾았다. 그 결과 다섯 커플이 매칭되는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선사시대로'는 2만년 전 구석기시대부터 청동기시대에 이르는 다양한 유적이 분포된 관광 테마거리로, 전문 해설사와 함께 입석, 고인돌 등의 역사유물을 체험하는 탐방코스로 각광받고 있다.

이태훈 구청장은 "지역 청년들이 역사의 발상지로 의미있는 선사시대로에서 평생을 함께 할 인연을 맺어 행복한 결혼친화도시로 올라가는 희망의 사다리가 되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달서구는 인구절벽 재앙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과 화목한 가족문화 조성을 위해 2016년 7월 전국 최초로 결혼장려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결혼공감 토크, 커플매니저 봉사자 양성, 민·관 러브라인 구축 등 다양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면서 결혼문화 확산에 매진하고 있다.

변점식 기자

"건강한 일터를 만드는 첫 걸음, 직장 건강보험 가입입니다"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가입안내

- 미가입사업장 가입 강조기간 운영 -
(2020. 11. 2. ~ 2020. 11. 30.)

◆ 목적: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권익보호

◆ 가입대상
- 사업장: 근로자(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을 포함) 1인 이상 고용사업장
- 근로자
  - 상용근로자
  - 1월 이상 고용 일용근로자
  - 1개월간 60시간 이상 단시간근로자
  - ☞ 장기요양기관 상근근로자, 요양보호사 등 60시간 이상 근무 시 취득대상

◆ 사업장 가입(취득)일
- 사업장: 사용자와 근로자간 고용관계 성립일
- 근로자: 사업장에 사용(고용)된 날

◆ 신고절차
- 제출 신고서: 건강보험 사업장(기관)적용신고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 신고서는 '4대사회보험 사이트(www.4insure.or.kr)/자료실/서식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 신고 방법: 4대사회보험 사이트(www.4insure.or.kr), 지사방문, 팩스, 우편발송 등 (☎ 1577-1000)

◆ 기타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권가입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벌칙), 제119조(과태료)의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h·well 국민건강보험 대구달서지사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위한 토론회

달서구의회(의장 윤권근)는 18일 안영란, 김기열, 조복희 의원 공동주관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첫 번째 토론회로 '우리지역 상권은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요?'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다.

달서구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한 지역의 소상공인들에게 안영란 의원은 '2020년 8월 12일부터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데 시행령의 주된 내용은 골목형상점가 제도 시행을 위해 전통시장법에서 위임한 골목형상점가의 밀집 기준 마련으로 지방자치단체가 2,000㎡ 이내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도록 하였지만, 중소기업벤처부에서 면적의 기준을 영업장면적으로 적용해 사실상 지방은 이 기준에 맞는 구역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소상공인을 위한 법을 개정했지만 유명무실한 격이라 중기부의 현 실정에 맞는 지원책 강구가 필요하다.'라고 역설했다. 또한, 법이 만들어지기 전 실태파악을 먼저 하고, 시행령이 지역 여건에 맞도록 개정되기를 집행부와 의회에서도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안영란, 조복희, 김기열 의원은 "한 번의 토론회로 소상공인들의 힘든 현실을 해결할 수는 없지만, 기관에서 추진하는 소상공인 지원 정책과 현장의 생생한 현실을 직접 듣고 그 간극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법이나 정책의 추진방향이 현실에 적합하도록 제안하고자 하며, 이런 토론회를 통해서 소상공인과 집행기관, 의원들이 다 같이 일관된 방향으로 제도 개선과 지원책 강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달서구의회>

'오이소, 보이소' 현풍백년도깨비시장에서 사이소~

편리함과 최저가로 온라인 쇼핑이 대세지만 직접 물건을 보면서 고를 수 있고 흥정도 할 수 있는 재래시장의 매력도 여전히 건재하다. 요즘 새롭게 뜨고 있는 달성군에서 가장 큰 재래시장인 현풍백년도깨비시장을 다녀왔다.

1918년 문을 연 현풍백년도깨비시장은 올해로 102년이나 되었다. 그래서 이름도 백년도깨비 시장이다. 도깨비라는 단어는 도깨비가 시장을 오가는 사람들의 근심과 걱정을 먹고 행복을 나눠준다고 해서 붙인 이름이다. 평소에는 조용하던 골목에 장날(0, 5)이 되면 도깨비가 마치 요술을 부린 듯 수백 개의 난전들이 빼곡히 들어서는 정말 엄청난 규모의 장이 선다.

다른 시골 오일장들이 쇠락해가는 반면 현풍백년도깨비시장이 날이 갈수록 규모가 커지는 이유는 경제자유구역인 테크노폴리스에 젊은 인구가 꾸준히 유입되면서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가 되었기 때문이다. 젊은 층의 수요에 발 빠르게 대응한 달성군은 현풍의 이름을 딴 현이와 풍이의 도깨비 캐릭터가 재미있는 청춘난장을 세워서 전통과 젊음이 공존하는 시장으로 탈바꿈하는데 성공했다. 청춘난장은 컨테이너 박스를 층층이 이어붙이고 쌓아서 만든 24개의 청년 창업공간으로 먹거리와 소품 가게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다. 컨테이너형 청년몰로는 전국 최대 규모이며 이곳의 가장 유명한 소갈비찜은 대기번호표를 받아서 줄을 서야 할 만큼 인기몰이중이다. 기자도 소갈비찜을 먹으려다 포기하고 대신 또 다른 맛집인 소구레국밥을 찾아 나섰다. 시장 안에는 소구레국밥 골목이 형성되어 있을 정도로 이곳 소구레국밥은 매우 유명하다. 소구레는 소의 가죽과 껍질 사이의 아교질 같은 부분을 일컫는데 이 소구레와 선지, 토란과 우거지를 넣고 푹 끓인 국밥이 아주 맛있다. 시장을 방문한다면 꼭 한번 들러서 맛보도록 하자. 떡볶이, 똥집튀김, 어묵 등 맛있는 길거리 간식도 많아서 방금 소구레국밥을 배불리 먹었음에도 이것저것 다 사고 싶어진다.

달고 싱싱한 수박을 한통에 3천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가격에 파는 트럭을 만나 두텅이 사고 눈깔 반들반들한(파는 아지매의 표현) 생물 고등어도 사고 배추도 샀더니 손수레가 미어터질 듯하다. 떨이라면서 원래 담긴 것보다 두 줌이나 더 얹어주는 고추 파는 할머니의 손길에서 시골 오일장의 정취가 느껴진다. 보는 재미와 먹는 재미, 사는 재미가 가득한 현풍백년도깨비시장, 다음 장날이 또 기다려진다.

서순옥 객원기자

달성군시설관리공단
비슬산휴양림 낙엽, 퇴비로 재활용

달성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순환)은 비슬산 휴양림 낙엽을 재활용하여 업무협약을 맺은 인근 용리마을회 농가에 퇴비 등으로 제공하는 행사를 지난 12일 실시했다고 밝혔다.

해발 600m에 위치하고 있어 대구에서도 단풍이 빨리 피고 예쁘게 지기로 유명한 비슬산 자연휴양림은 낙엽 폐기물 또한 매년 대량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낙엽수거 후 재활용의 특수시책을 시행해, 낙엽 수거-쓰레기 분리-잔가지 분리와 같은 여러 분류의 공종을 거쳐 양질의 낙엽만 담아 농가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나눔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이런 낙엽 재활용으로 폐기물처리비를 줄여 예산 절감을 하고, 마을은 퇴비를 무료로 제공받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고 있다.

강순환 이사장은 "코로나19로 침체된 농가에 낙엽퇴비 나눔 서비스를 시행해 활기를 불어넣고, 공유자원 활성화라는 정부 시책에 발맞춘 공단의 발 빠른 적극 행정을 앞으로도 계속 보여 줄 것이다"라며 공유자원 활성화에 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자료제공:달성군시설관리공단>

청년의 마음을 담아 '청년에게 희망을'
'달서구 청년정책위원회' 개최

달서구(구청장 이태훈)는 17일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안) 심의와 신규사업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달서구 청년정책위원회'를 개최했다.

'달서구 청년정책위원회'는 청년활동가와 분야별 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된 민·관 협력 네트워크로 지역 여건에 맞는 각종 청년정책 발굴 및 심의를 위해 2019년 6월 출범했다.

이날 회의는 2020년 청년사업의 주요성과, 2021 청년정책 시행계획(안) 심의, 신규사업 의견수렴 등으로 이뤄졌고 '당당한 청년, 희망찬 달서'를 비전으로 수립한 청년정책 5대 전략(사회참여 활동 지원, 일자리 창출, 청년자립 환경, 청년문화 활성화, 결혼친화 환경)을 중심으로 30개 중점 추진과제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특히, 청년들이 지역문제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청년공동체 사회참여 프로젝트 사업', 청년의 날을 기념하는 청년축제인 '달서청년주간' 및 정부와 지역여건에 부합하는 일자리 창출 등 신규사업에 대해 위원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태훈 구청장은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청년층을 포함한 모든 계층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한편으로 '청년기본법'이 제정·시행되어 청년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 뜻깊은 해다. 오늘 위원회에서 청년정책을 공유하며 실효성 있는 사업 발굴을 통해 청년의 마음이 담겨진 정책, 청년에게 희망을 전하는 정책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자료제공:달서구청>

우리동네 구석구석, 크고 작은 소식들이 살아 있는 곳!
지역민을 위한 푸른방송 ch1

겨울이 다가오면서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은 코로나와 겹쳐져 올해 겨울이 더 춥게 느껴질 수도 있다.

도움의 손길이 간절하게 필요한 이 계절에 '모두 함께 따뜻한 겨울을 보내자'는 이웃의 온정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한파를 물리치는 동(冬)장군 어사또 사업

달서구, 관내 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

달서구(구청장 이태훈)는 11월부터 12월까지 종합사회복지관과 연계하여 관내 취약계층에게 동절기 방한용품 제공 및 설치를 지원한다.

달서구는 관내 7개 종합사회복지관과 연계하여 독거노인, 중증 장애인 등 에너지 취약계층 180여 세대를 대상으로 에어캡 및 문풍지, 난방텐트 설치에 나선다. 이 사업은 다음달 18일까지 진행되며, 취약한 주거환경으로 겨울철 한파에 노출되어 있는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자원봉사자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봉사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생활실태를 직접 파악할 수 있는 현장복지 실천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자료제공:달서구청>

지역인재양성 한뜻

(재)성주군별고을장학회 기탁 줄이어

(재)성주군별고을장학회를 찾는 기업과 단체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월항면 우리건설주식회사 대표 이영미 2백만 원(누적액 4백만 원), 성주라이온스클럽 2백만 원, 선남면 (주)모아 대표 송재동 5백만 원(누적액 18백만 원) 등이 그 주인공.

이영미 대표는 월항면 소재 건설업체를 운영하면서 2017년부터 매년 장학금을 기탁하고 있다. 성주라이온스클럽은 매년 지역 청소년 관련 사업을 추진하다가 올해 코로나19로 사업추진이 어렵게 되자 장학회 기금으로 기탁하게 됐다.

우수강소기업인 ㈜모아 송재동 대표는 "꿈과 미래를 향해 달려 나가는 학생들을 위해 써 달라"고 말하며 장학금을 기탁했다. <자료제공:성주군청>

성주군 이웃사촌복지센터 이웃 사랑 김장 나눔

성주군 이웃사촌복지센터는 23일 성주읍 대흥2리 경로당에서 마을주민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웃사랑 김장나눔 행사'를 실시했다.

행복고구마가꾸기 사업은 대흥2리가 이웃사촌복지센터와 함께 하는 '복지사각 지대 없는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올 5월 고구마를 식재, 수확한 수익금으로 대흥2리 부녀회와 노인회 30여 명이 김장김치 60포기를 담아 마을 어르신 세대에 전달했다.

상인1동, 사랑의 김장 나눔

달서구 상인1동행정복지센터(동장 황현구)는 23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김종국)와 행복나눔공동체(위원장 오경여) 주관으로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를 추진, 저소득 가정 60가구에 김장김치를 전달했다.

하루커피앤도넛, 후원 물품 기탁

'하루커피앤도넛' 이안아 대표는 23일 논공읍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라면 100박스와 덴탈마스크 4,000장(230만 원 상당)을 기탁했다.

이안아 대표는 논공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부위원장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데 힘쓰고 있으며, 저소득 청소년을 대상으로 바리스타 체험을 지원하는 'I LOVE COFFEE' 사업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윈코리아, 코로나19 예방 마스크 기부

윈코리아(대표 박부경)에서 18일 고령군청을 방문해 코로나19의 관내 확산방지를 위해 직접 생산한 마스크 10,000매를 기부했다.

윈코리아는 성산면 동고령 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의약외품 생산업체로, 최근 마스크 생산설비를 갖추고 생산 및 판매 중에 있다. 박부경 대표는 "우리지역에서 직접 생산한 마스크를 관내 취약계층에게 전해드릴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보몽드, 사랑나눔을 이어가다

㈜보몽드 김원섭 대표–김연호, 남현주 가정

성주군은 결혼이민여성이 300명을 넘어서고 다문화가정 자녀도 334명 이상이다.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 등에 따르면 '다문화가정은 문화와 언어가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교육 및 활동을 지원받고 있으며 명실공히 지역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가정 내 어려움을 해결하기가 다른 가정보다 막막하고 곤란한 경우도 많아 안타까운 상황들도 접할 때가 종종 있다'고 한다.

대한적십자사 성주군지부(지부장 김영옥)에서 찾은 월항면 김연호, 남현주 가정이 그러하다. '19년 6월, 남편 김연호 씨가 뇌출혈로 갑자기 쓰러져 식물인간이 되자 한 순간에 가장이 된 남현주 씨는 거동이 불편한 시어머니와 세 남매를 홀로 건사하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어 적십자 회원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이를 듣고 '침구를 만드는 행복한 기업' ㈜보몽드 김원섭 대표가 두팔을 걷어붙였다. 선남면 동암리 입구에 위치한 이불 공장인 ㈜보몽드는 관내 취약계층이나 주민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이불을 기증해 지역사회를 따뜻하게 해주는 등 꾸준한 사회공헌활동으로 주민들의 사랑과 감사를 받고 있는 토종 기업이다.

김 대표가 "견디기 어려운 현실에 너무 작은 보탬이라 송구하다"고 겸손해 하며 '형편이 어려운 가정을 후원하게 되어 작은 부담과 큰 보람을 동시에 느낀다'고 하자 베트남에서 온 남현주 씨는 "저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셨으면 좋겠다"고 답해 감동을 자아냈다.

기업 및 단체 등이 지역의 다자녀가정에 월 10만 원씩 1년간 지원하는 사업인 '다자녀가정-기업·단체 간 후원협약'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후원문의는 성주군 인구정책부서(☎054-930-6032)로 하면 된다. <자료제공:성주군청>

GCS 푸른방송
GREEN CABLE TELEVISION STATION

지역민을 위한 맞춤형 채널

Ch.1 프로그램 소개

Channel for you

행복한 달서구 달성군 ▶ 정겨운 우리동네

지역의 다양한 행사나 동아리, 동호회 등의 행사를 제작, 방영하는 프로그램

버스킹 & 시간여행

버스킹으로 떠나는 시간여행 음악과 함께 추억을 선사하는 프로그램

사랑의 메시지

사랑하는사람, 보고싶은사람, 고마운 분들에게 감동 메시지를 전달해 드립니다.

▸참여방법:사연과 관련사진, 동영상 등을 푸른방송으로 보내주세요.
사연은 푸른방송제작팀 E-메일 gcsup@gcs.co.kr / YellowID@gcsch4
☎ 053-551-2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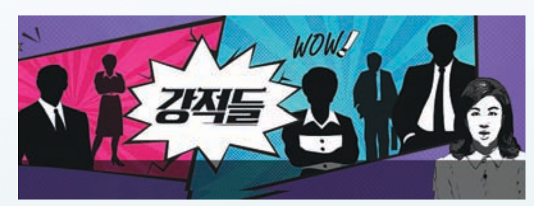
지역채널 뉴스 ▶ ch1 푸른방송 NEWS

지역의 생생한 소식을 신속히 전해드립니다.

▶ **방송시간**
매일 ⇨ 00:00 / 03:00 / 06:00 / 08:00 / 12:00 / 16:00 / 19:00

종합편성채널(종편)

▶ TV조선 토요일 밤 9:10



대한민국 최강! 센 캐릭터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진보한 시사는 박수받지만 진부한 시사는 외면 받는다.
서로코드가 맞지않는 강적들이 뭉쳤다.
고품격 저품격 사이의 아슬아슬한 시사쇼!

▶ JTBC 토요일 밤 9:00

인생을 살다보면 마주치게 되는 사소하지만
궁금해 견딜 수 없는 질문들
그럴 땐 !!! '질문하라! 아는 형님이 답할 것이다.'

나이도, 출신도, 성격도, 외모도 전혀 다르지만
그들만의 방식으로 추측하고! 실험하고! 전해 주는
'아는 형님'만의 인생 해답!

케이블 채널

▶ tvN 수, 목요일 밤 10시 30분

환상적인 멜로 판타지의 주인공, 남자 구미호

그동안 드라마에 나왔던 구미호는 대부분,
사랑스러운 여자 구미호들이었다.
하지만 이 드라마의 주인공은 남자 구미호다.
당장 간이라도 빼주고 싶게 만드는 신비한 얼굴로,
오직 한 여자만을 기다리는 지고지순한 순정남.
구미호 "이연"은 여성들이 꿈꾸는
가장 동양적인 판타지가 될 것이다!

구전동화 속 주인공들이 돌아온다! '모던'한 옷을 입고!
인간을 뛰어넘은 새로운 액션물

새로운 무술과 CG 시퀀스를 통해 그간 보지 못했던 독특한 비주얼의 액션을 보여줄 것이다

푸른방송 최신 영화관(VOD)

▶ 푸른방송 VOD 극장동시 상영작

소리도 없이

악의 없이, 계획에 없던 유괴범이 되다!
범죄 조직의 하청을 받아 근면성실하고 전문적으로 시체 수습을 하며 살아가는 '태인'과 '창복'.
어느 날 단골이었던 범죄 조직의 실장 '용석'에게 부탁을 받고 유괴된 11살 아이 '초희'를 억지로 떠맡게 된다.

담보

"담보가 무슨 뜻이에요?"
예고 없이 찾아온 아이에게 인생을 담보 잡힌 두석과 종배. 빚 때문에 아저씨들에게 맡겨진 담보 승이.
두석, 종배, 승이 세 사람은 어느덧 서로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는데…
돈 받으러 갔다가 인생의 보물을 만났다!

시청방법 ▸▸
메뉴 → VOD다시보기 → 영화 → 극장동시상영관

문의전화 053.551-2000

※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곽용환 고령군수, 2021년도 비전 제시

2021년 본예산 3,359억 원 편성, 민생경제활성화 사업에 역점
'I ♥ 대가야 고령' 프로젝트로 누구나 살고 싶은 행복도시 완성

곽용환 고령군수는 23일 열린 제265회 고령군의회 정례회에서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군정 운영방향과 주요정책을 설명했다.

먼저 "군민 각계각층과 소통하는 현장행정으로 군민이 감동하는 열린 군정을 펼쳐 나가고 '누구나 살고 싶은 대한민국 대표 행복도시 고령'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와 집중호우, 가축 감염병 등 대내외적으로 힘든 상황에도 통계청 국민행복지수 발표결과, '삶의 만족도 대한민국 1위'를 차지하며 작지만 강한 고령군의 저력과 역량을 입증 받았다"면서,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으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다는 용기와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고 말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과 주민생활불편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더 큰 고령, 더 행복한 군민'의 군정목표 달성을 위한 6대 군정운영 과제를 제시했다.

△더불어 성장하는 경제기반 구축으로 지속가능한 신성장 동력 확보 △대가야의 세계화로 대가야 고령의 자긍심 고취 △더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 조성 △미래농업육성으로 경쟁력 있는 희망농촌 건설 △모두를 위한 복지와 나눔문화 확산으로 맞춤복지 실현 △소통행정 실천과 교육투자를 통한 인재육성 등이다.

곽용환 군수는 "민선7기 약속사업을 완성하기 위해 더욱 능동적이고 창의적으로 일하겠다"며 "내년에는 한국판 뉴딜과 국가정책 방향에 맞춰 군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민생경제활성화 시책과 군정 전략사업에 초점을 맞추고, 군민 참여 캠페인 'I ♥ 대가야 고령' 프로젝트를 추진해 '대한민국 대표 행복도시, 누구나 살고 싶은 아름다운 도시 고령'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내년도 고령군 예산 규모는 올해보다 1.5% 감소된 3,359억 원으로 일반회계 3,239억 원과 특별회계 120억 원이다.

<자료제공:고령군청>

지역관광활성화 및 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고령군관광협의회 – 제천시관광협의회 업무협약 체결

사단법인 고령군관광협의회(회장 이상용)와 사단법인 제천시관광협의회(회장 김태권)는 20일 고령군청 우륵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상호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협약식에는 양 협의회 임직원과 고령군청, 제천시청 관계자가 참석, 코로나시대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갖추어야 할 수용태세 준비 및 성공적인 DMO(Destination Marketing/Management Organization) 사업 진행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DMO 사업이란 지역주도형 관광 사업을 지원하는 '지역관광 플랫폼'으로, 지역 내 관광 관련 산업과 관광 관련 협회, 주민조직 등이 네트워크를 구축해 지역주도형 관광사업을 추진하며, 관광사업 기획·홍보 마케팅·관광 품질 관리·관광콘텐츠 개발 등을 민간 주도로 선도하게 된다. 양 관광협의회는 각 지역의 성공적인 DMO 정착을 위하여 활발하게 인적·물적으로 교류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양 지역 간 관광발전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양 지역 간 인적·물적 자원 교류 △양 관광협의회 주관 행사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 등 상호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상호 지역 축제에 시찰단을 파견하고 지역 내 모객 등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며 DMO 사업 등

국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상호간의 경험과 아이디어를 교환하여 시행착오를 줄이기로 약속했다.

이상용 회장은 "제천시관광협의회와의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통해 언택트 시대에 맞게 선진 관광을 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분야에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고령군청>

'도암서원' 향사 봉행

고령군(군수 곽용환)은 지난 20일 도암서원에서 기관단체장 및 회원들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암서원(김면 장군) 향사를 봉행하였다.

이번 도암서원 향사봉행은 오원수(고령, 고창 오 씨)를 초헌관으로, 아헌관에 김태호(대구, 고령 김 씨), 종헌관에 김용인(서울, 고령 김 씨)이 각각 맡아 진행됐다.

송암 김면장군은 고령 출신 유학자로 임진왜란이 발생되자 의병을 일으켜 무계, 개산포, 우척현, 지례, 사랑암, 성주성 등에서 치열한 항쟁을 벌였으며, 의병연합군을 결집하여 10여 차례의 큰 전투와

30여회의 소규모 접전을 벌여 왜군을 막아냈다. 곽용환 고령군수는 향사 봉행을 준비한 회원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하면서 "송암 김면장군의 충효사상 및 호국사상을 계승하는데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자료제공:고령군청>

이병환 성주군수, 2021년 군정 방향 제시

성주미래 100년 성장 발판 마련, 6대 군정 운영방향
군민행복 예산안 5,320억 원, 군의회 제출

이병환 성주군수는 23일 열린 '제253회 성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시정연설을 통해 2021년도 군정방향을 제시하고, 내년도 예산안 5,320억 원을 군의회에 제출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 모두가 하나되어 눈부신 성과를 거둔 해였다고 평가하면서, ▶역대 최다인 국도비 예산 3,077억 원 확보(2019년 1,501억 원), 사상 최대 규모의 공모사업 1,504억 원(2019년 561억 원) 선정, ▶성주참외 조수입 2년 연속 5천억 원 달성, ▶언택트 힐링의 새로운 문화관광 프로그램을 선보인 '성밖숲 희망길 와숲행사'와 '썸머아트바캉스행사' ▶도심형 관광명소 '성주역사테마파크' 준공, ▶아이들을 위한 '놀벤저스' 등 각종 놀이시설 마련을 올해 주요성과로 꼽았다.

이어서, 내년도 성주군정 운영방향으로 △환경변화 대응 '신성장동력 SOC사업' 가치창출 △혁신을 통한 '미래농업' 선도 △즐거움에 품격을 더한 '문화복지 도시, 명품 관광도시' 창조 △젊음과 미래가 풍만한 '경제도시, 행복도시' 건설 △'안전 기본, 사람중심 복지성주' 실현 △'공감과 소통의 열린 행정' 구현 등 6대 분야를 제시하면서, 미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지역발전을 위한 분야별 핵심사업을 구체화하고 한층 더 견고히 하여 힘차게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2021년 성주군을 대표할 핵심사업으로 ▶도심의 대변혁을 이룰 도시재생 뉴딜 1·2단계사업 ▶문화와 별빛이 흐르는 수변공간 이천친환경 조성사업 ▶힐링과 치유의 랜드마크 심산문화테마파크 조성사업 ▶독보적인 명품참외의 비결 비상품화 농산물 자원화센터 건립 ▶성주관광의 메카 성주호 생태둔치공원 조성사업 ▶포스트 남부내륙철도 성주역 유치 및 역세권 개발 ▶영남 큰고을의 꿈 新주거단지 조성 ▶체육인프라의 완결판 별고을 종합체육시설 조성사업 ▶복지성주의 실

현 종합복지타운 및 노인복지타운 건립 ▶지역경제 활력의 기폭제가 될 선남골프장 조성사업 등을 정하고, '성주미래 100년'을 위한 성장발판을 삼아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한편, 군의회에 제출한 내년 재정규모는 올해보다 6.8%(341억 원) 증가한 5,320억원으로 일반회계 4,476억 원, 특별회계 385억 원, 기금 459억 원이다.

이병환 군수는 "재정자립도가 11.2%에 불과하고, 경기 전망이 어두운 상황에서 치열한 고민을 담아 마련한 2021년도 예산임을 헤아려 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자료제공:성주군청>

학교연계형 스포츠클럽 공모사업 선정

성주군,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 국비 4억 확보

성주군(군수 이병환)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대한체육회 및 도 체육회가 주관하는 '2020년 학교연계(한종목) 스포츠클럽'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지역의 엘리트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공공 및 학교체육시설에서 전문강사를 채용하여 연령, 수준(취미반-심화반-선수반)에 따라 맞춤형 스포츠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면평가와 발표평가 현장실사를 거쳐 체육시설 확보, 운영 및 재정확보 능력 등을 심사한 결과 별고을테니스클럽이 선정되어, 향후 5년간 국비 총 4억 원(연간 8천만 원)을 지원 받게 된다.

이병환 군수는 "선남면복합문화체육센터 선정에 이어 지역 체육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료제공:성주군청>

성주군, 코로나19 안심식당 40개소 지정·운영

성주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도 안심하고 갈 수 있는 '안심식당'을 지정·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안심식당은 감염관리에 취약한 식사문화를 개선하고 생활방역 수칙을 준수해 위생적이고 안전한 환경에서 식사를 할 수 있는 음식점이다. 개인용 접시와 덜어먹는 도구 비치, 위생적인 수저 관리, 종사자 마스크 착용, 주기적인 환기와 소독 실시 등 지정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현재 성주군에는 40개 안심식당이 지정 운영 중에 있으며, 지정업소는 코로나19 안심식당 지정 안내판이 부착되고 온라인 포털 및 지도 앱 등에 안심식당으로 표출되며, 연말까지 10개소를 더 지정할

계획이다. 안심식당 지정 신청 및 이용 등 관련 사항은 성주군 경제교통과로 문의하면 된다. <자료제공:성주군청>

무흘동천교 준공

성주군(군수 이병환)은 지난 20일 도의원, 군의원 및 지역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금수면 무학리 무흘동천교 준공식을 가졌다.

성주호 순환도로 개설 및 기반시설 정비사업으로 시행한 공사는 무흘동천교 신설 외 교량 진입로 구간의 국도 30호선을 4차로로 확장하고, 마을안길을 차량교행이 가능하도록 넓혔다. 무흘동천교는 총 사업비 50억원을 투입한 길이 115m, 폭8m의 교량으로 2018년년 8월 착공해 2020년 6월 교량 신설과 국도확장 공사를 마무리했다.

지역 주민들은 기존 교량(광암교)의 폭이 협소하여 불편함이 많았다면서 무흘동천교 신설로 행락철 차량정체와 교통사고 위험이 이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제공:성주군청>

부모 독서지도 교실 운영

우리아이 어떻게 책으로 이끌까?

성주군 보건소는 12월 9일 오후 2시 보건소 보건교육실에서 6~36개월 부모 20명을 대상으로 '북스타트 부모교육'을 운영한다. 북스타트는 '책과 함께 인생을 시작하자'라는 취지로 진행하고 있는 사회적 육아지원 운동으로, 상반기는 코로나 19 예방 일환으로 비대면 홈 북스타트를 운영했고, 하반기는 자녀들의 올바른 독서 습관을 만들기 위한 부모 독서지도 교실이다.

이번 교육에서는 가족 미술치료 및 독서 전문상담 강사를 초빙해 '우리가족 동화책 만들기'를 통한 가족 미술 상담치료와 우리아이 맞춤형 독서지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성주군 보건소는 넘쳐나는 지식 정보화 시대에 발맞춰 책 읽어주기 문화에 관심있는 부모들의 적극 참여를 바란다' 고 전하며 참여를 희망자는 이달 18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출산지원부서(☎930-8143)로 문의하면 된다. <자료제공:성주군청>

jtbc2

재미를 담다

jtbc2 채널번호
푸른방송 8VSB 36-1, 디지털 44번 | IPTV KT olleh 39번, SK Btv 48번, LG U+ 40번 | SkyLife 45번

지역사랑 파트너

'나' 보다 '우리' 가 강하다. 서로 도우며 힘들수록 함께해요!

음식관련

장기 · 화원

굴뚝 농이버섯 백숙
"버섯의 제왕 ~일품농이버섯"
+ 농이버섯오리백숙 ₩55,000
+ 농이버섯임팩숙 ₩50,000
+ 농이북음탕 ₩50,000
+ 해신탕 ₩110,000
+ 농이삼계탕 ₩12,000
T.635-3434 달성군 화원읍 전내리 235 화원삼거리 막차터미널 내

기타(타구)지역

카페 투다트에서 진짜 커피를 만나다
카페 투다트 팔공산점
대구시 파계로 596 053.981.1359

리빙

도배 · 장판 시공전문
안광인테리어
010-3099-1684
달서구 본동 970

기타

Q 24시
타이, 아로마 마사지
T.(053)636-5238
달서구 상인서로 20 (4층)
(구. 상인나이트 건너편)

롯데아울렛
이시아폴리스점
945-2302
대구시 동구 봉무동 1545

중고물품 판매합니다.
전집(전래,명작 등), 인형, 장난감
다수 보유, 가격조정 / 직접방문필!
문의: 010-3424-8523

청소년과 부모님을 위한 재미있고 신나는 #신호교정복
두근두근, 꿈과 마주하기
상담코칭센터 인투커리어 070-4306-1201

2020년 코로나도 겪고 추운 겨울
경제적, 신체적으로 소외된 취약계층 어르신께
'김장나누기, 혹한기 방한용품지원'을
위하여 겨울나기 캠페인을 실시하오니 여러분의 따뜻한
사랑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대덕愛 따뜻한 겨울나기 캠페인

현물후원 김장, 등유, 전기장판, 각종 난방용품

현금후원
대구은행 031-12-002229
대구은행 505-10-213822-8
국민은행 807101-01-391523
농 협 351-0262-5276-13
(예금주 : 대덕재가노인돌봄센터)

일시 2020년 11월 01일 ~ 2020년 12월 31일

문의 053)625-9523,9526

대구광역시지정
사회복지법인 대덕재단 대덕재가노인돌봄센터

푸른신문은 독자가 만드는 신문입니다. 푸른신문은 모두에게 열린 신문입니다.

소중하지 않는 삶이 없습니다.
나름의 가치와 나름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이 가치 있고 행복한 삶입니다.
푸른신문은 그 소중한 삶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독자 여러분이 기자가 되어
사람 사는 이야기, 우리 사는 이야기를 신문에 실어 보시기 바랍니다.
가정과 가족 이야기(결혼, 출산, 자녀교육 등), 코로나 관련 이야기(코로나 체험기, 코로나 블루 극복 등), 창업(개업) 이야기, 추천하고 싶은 나만의 취미…
나의 이야기도 좋고 주변의 이야기도 좋습니다.
원고를 써서 보내주셔도 좋고 제보만 해 주셔도 환영합니다.
살면서 느끼고 경험하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가운데 우리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사회가 만들어집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보내실 곳
편집국 (053) 572-6000 / E-mail: pr5726000@naver.com
대구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323길 13 3층 (우편번호 42640)

▶보내는 방법
- 형식은 제한 없으나 원고를 써서 보내실 경우 1,000자 내외를 기본으로 합니다.
- 관련 사진 있으면 함께 보내주시고, 연락 전화번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신문에 게재되신 분께는 소정의 기념품을 드립니다.

저작권 침해, 공공누리 서비스로 해결

정보화 홍수 속에서 한시라도 인터넷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 되었다.

인터넷을 이용한 삶은 유익하고 좋은 점도 많이 있지만 그에 따른 많은 문제점 또한 발생하고 있다.

수많은 새로운 정보 속에 진짜 정보와 거짓정보를 분별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으며, 많은 인터넷 등록물과 게시물로 인한 사생활 침해나 저작권 침해 같은 소송에 걸릴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저작권 침해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분쟁에 휩싸일 수도 있기에 정말 조심스러운 것이며, 실제로도 많은 분쟁들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저작권 침해 등으로 인한 분쟁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한국문화정보원에서는 누구나 무료로 사용 할 수 있는 공공누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공공누리 서비스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제도로서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사용 가능범위의 4가지 공공누리 유형 마크를 통해 누구나 사용 할 수 있도록 개방한 통합 공공저작물 정보 제공 서비스이다.

공공저작물이란, 저작권법 제24조의 2에 따라 청와대, 대구광역시, 부산항만공사와 같은 국가 지방단체 및 공공기관 등이 그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유하여 국민이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저작물을 말한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각 기관이나 지자체 등에 허락을 받지 않아도 이용 할 수 있는 편리함 등이 있으며, 단, 서비스이용시 공공누리 이용 준수사항만 지켜준다면 저작권 침해 걱정 없이 품질 좋은 1,200만 건 이상의 저작물을 무료로 사용 할 수 있다.

이용 준수사항은 공공저작물 사용 후에는 출처 표시만 정확히 해준다면 아무 문제없이 사용 할 수 있다. 사용방법 또한 번거롭거나 복잡하지 않게 단순 절차만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공공누리사이트(www.kogl.or.kr)에 접속한 다음 원하는 공공저작물을 검색하거나 고품질의 공공저작물 추천 받기를 통한 저작물을 선택 한 후 이용조건 확인, 다운로드 받기, 출처표시하기로 간단하게 이용 할 수가 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국번없이 1670-0052로 언제든 문의하면 된다.

한국문화정보원에서 제공하는 공공누리서비스를 잘 활용해 저작권 침해 걱정 없는 즐거운 인터넷 생활을 하기 바란다.

김재훈 객원기자

대구시 스마트 방역사례

2020스마트시티 엑스포 월드 콩그레스에 초청받다

대구시 성공적인 방역정책 발표
약 100여 개국 주요 도시의 지방정부, 기업, 연구소 등 전문가 참여

대구시는 지난 18일 세계 최대 스마트시티 엑스포 월드 콩그레스(SCEWC, Smart City Expo World Congress)에 초청받아 두 차례에 걸쳐 전 세계에 코로나19 위기 대응에 대해 실시했던 모범방역 정책과 사례를 홍보하고 대구시를 알렸다.

이번 발표는 대구시가 가입해 활동하고 있는 국제기구인 METROPOLIS(세계대도시연합)와 UCLG WORLD(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의 초청에 의해 이뤄졌다.

대구시는 2번의 세션에서 대구의 성공적 방역과 대응정책에 대해 약 10분간 소개했으며, 스페인 바로셀로나, 마드리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핀란드 헬싱키 등의 도시들도 함께 세션에 참가했다.

※첫번째 발표 세션 : 11월 18일 18:15~19:00 (중앙유럽시간 10:15~11:00)
▷주제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스마트 회복'

※두번째 발표 세션 : 11월18일 23:00~24:00 (중앙유럽시간 15:00~16:00)
▷주제 : '도시보건_유행병 대처를 위한 도시 간 협력'

'스마트시티 엑스포 월드 콩그레스(SCEWC)'는 매년 11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 스마트시티 행사다.

지난해에는 전 세계 150여 개국 700여개 도시에서 1,000개 기업과 2만 5,000여 명의 관련 분야 전문가가 참여했으나,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11월 17~18일 오전 9시~ 오후 7시까지(중앙유럽현지시간) 이틀간 온라인으로 개최됐다.

대구시가 참여한 세션은 부대행사로, 도시의 핵심 집행 주체인 지방정부의 도시문제 인식과 디지털기술의 효율적 접목에 관한 내용을 다룬 시간이었다. 특히 올해는 유럽 도시 중심으로 성공적인 K-방역의 모태가 되었던 대구에 대한 관심이 높았기에 아시아 대표 도시로 대구시가 초청을 받았다. 초청은 2011년부터 스마트시티월드 콩그레스 파트너 기관으로 참여를 해 오고 있는 세계대도시연합(METROPOLIS),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UCLG WORLD)을 통해 이뤄졌다.

이번 발표에서 대구시는 코로나19 드라이브 스루(Drive-through) 검사 실시가 세계 최초로 탄생된 배경과 ICT정보통신기술 인프라를 활용한 역학조사와 검역 등의 방역분야, 경제·사회·교육 분야의 거버넌스 측면에서 방역활동 등을 주로 소개했다.

이기석 대구시 국제통상과장은 "유럽 도시들은 급박하게 닥친 지역의 팬데믹 문제를 드라이브 스루와 생활치료센터 운영 등 창의적이고 획기적인 방식으로 해결하고, 특히 민관이 협력한 대구의 시민 참여형 방역에 관심들이 많았다"고 발표 소감을 전했다.

<자료제공:대구시청>

'1인 기업' 전성시대

올해 3살이 된 아이를 키우는 김하람(29·북구 복현동) 씨는 2년 전 육아를 시작하면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다. 아이를 돌봐 줄 사람도 마땅히 없고 누구에게 맡기기에는 너무 어리다는 이유였다. 그런 그녀가 3개월 전부터 아기 용품을 판매하는 1인 기업의 CEO가 되었다. 대학에서 시각디자인을 전공한 이력이 있고 아기자기한 소품을 만드는 일을 평소 취미로 하고 있었던 터라 그가 선택한 주력 품목은 바로 헤어밴드와 헤어핀. 어떻게 그녀는 아이를 키우면서 동시에 창업을 할 수 있었던 것일까?

먼저 1인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자. 1인 기업은 서비스업 및 제조업 분야에서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서 상시 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1인 기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온라인 쇼핑몰이다. 온라인 판매는 사업장이 따로 필요 없고 통신판매업 신고를 관할 시군 구청에서 하면 된다. 구체적인 정보는 중소벤처기업부 민원실에서 문의를 통해 얻을 수 있고 무엇보다 1인기업과 관련해 구체적인 노하우나 방도를 주제로 한 책들이 시중에 많이 나오고 있어 참고를 할 수 있다.

1인 기업가에게도 제품 판매를 위해서는 다른 기업과 마찬가지로 홍보가 필요하다. 이때에도 큰 자본 없이 홍보를 할 수 있는데 바로 최근 사용자가 급증한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서 판매를 주로 하지만 판매와 동시에 홍보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입소문이 중요한데 이벤트를 한다거나 제품 사진을 해시태그(#)와 함께 올려 공유하면서 홍보를 하는 식이죠, 구매자가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팔로워 수도 늘었어요" 하람 씨의 경우 제품을 착용한 사진이 홍보에 중요한데 이때 모델은 3살 딸이다. 딸은 원래 사진 찍히는 것을 좋아했는데 하면 할수록 어른 모델처럼 포즈도 점점 더 다양해졌다고.

한편, 2011년부터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 중이며 꼭 1명이 아니더라도 2~3인 규모의 가족기업이나 도제 기업도 1인 창조기업에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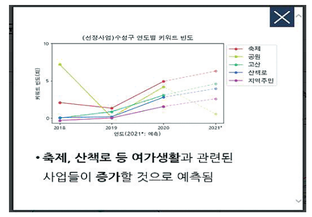
이원욱 객원기자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 한 눈에 본다

주민제안사업 빅데이터 분석, 구·군별 지역특성 확인과 경제활동 기초자료

대구시는 최근 3년간 주민제안사업의 빅데이터를 분석한 워드클라우드, 추이 예측, 매핑 시스템을 공개해 주민 및 지역 사업자 누구나가 열람·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키워드 워드클라우드



추이예측 그래프

매핑 시스템

워드클라우드 형태의 각 구·군별 제안사업 주요 키워드와 최근 3년간의 선정사업 추이 분석을 바탕으로 한 향후 예측 그래프, 지도 위에 각 사업의 위치를 표시한 매핑 시스템 등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통계를 대구시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http://jumin.daegu.go.kr)에 공개했다.

특히 이번 통계는 지역별 특성을 비교해 볼 수 있어 더욱 의미가 있다. 가령 구·군별 현황 중 서구의 경우 '철로변'이라는 키워드가 크게 눈에 띄는데, 실제 주요 선정사업 중 '경부선 철로변 공원 정비', '철로변 배드민턴장 탄성우레탄 설치', '장미공원 추가 조성' 등 철로변 주변 개발 사업을 다수 확인할 수 있다.

추이 예측에서도 지역별 특색이 드러난다. 동구의 경우 CCTV, 방범 등 생활안전 관련 키워드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지만, 인접한 수성구의 경우 축제, 산책로 등 여가와 관련한 사업 수요가 앞으로도 증가할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등 구·군별 지역 특성과 주민선호사업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런 예측은 단순히 예측에서 그치지 않고 지역 사업자들이 경제활동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을 줄 것이 기대된다.

김정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주민참여예산 사업 통계 공개는 단순히 자료를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보기 쉽고, 지역별 특색이 드러나며, 미래의 예측까지 분석한 자료를 공개해 주민들, 특히 지역 사업자들이 폭넓게 활용할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료제공:대구시청>

'DICO에 바란다'

대시민 혁신 아이디어 공모

11. 23~12. 7까지 4개 분야 나눠

대구시설공단(이사장 김호경)은 이달 23일부터 12월 7일까지 'DICO에 바란다' 2020 대시민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공모분야는 △사회적 가치 실현 기관 운영 △지역경제 회복력 확보 △참여와 협력 확대 △주민 체감 일하는 방식 혁신 등 총 4개 분야로 공단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아이디어를 받는다.

접수된 아이디어는 사업 분야(예산, 비예산)에 따라 내·외부 심사를 통해 대상 30만 원(2명), 우수상 15만 원(4명), 장려상 10만 원(6명)을 상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참가자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20명에게는 1만 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한다.

응모 방법 및 세부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 정책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 및 공단 홈페이지(http://www.dgsisul.or.kr)에서 확인 가능하며, 기타 문의는 성과관리팀 담당자(053-603-1083)에게 문의하면 된다.

김호경 이사장은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이번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공단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대구시설공단>

광고는 해야하는데 비용이 걱정 되신다고요?
여기 푸른신문이 있습니다. 광고문의 053-572-6000

스마트 도시 대구
버스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 제공

전체 시내버스(1,617대)에 공공와이파이 설치 완료
무선인터넷 인프라 확대 구축(99개소) 완료

대구시는 모든 시내버스에서 무료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한다.

*무료 공공와이파이: 공공시설이나 버스 등 공공장소에서 무료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제공

※버스 와이파이 구축운영비 : 정부와 대구시가 1 : 1 매칭 / 시는 회선이용료 분담(대당 월 약 2만 2,000원 정도)

대구시는 국비(50%)를 지원받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동으로 지난해 시내버스 583대에 무료 와이파이를 설치했으며, 나머지 시내버스 1,034대에 대해 와이파이 설치 및 시험 운영을 완료했다.

이로써 20일부터 대구시에서 운행되는 모든 시내버스에서 무료로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버스 승객이 무료 공공와이파이를 이용하려면 휴대폰의 와이파이 기능을 켜 무선네트워크 설정에서 일반접속의 경우 'PublicWiFi@BUS_Freee'를 선택하고, 만약 보안이 필요한 접속일 때는 'Public Wifi@BUS_Secure'를 선택해서 사용하면 된다. 어느 경우에든 승객은 자신이 가입한 통신사와 관계없이 무료로 공공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다.

공공 와이파이는 보안을 강화해 운영하지만 서비스의 특성상 누구라도 접속이 가능하므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거래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사용하는 것은 가급적 피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통신사가 와이파이를 구축하고 대구시가 회선이용료를 부담하는 '무선인터넷 인프라 확대구축' 사업은 올해 상반기에 소공원, 공공도서관 등 99곳에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을 완료해 운영 중에 있으며, 올 연말까지 버스정류장, 공원 등을 중심으로 270여 곳에 추가 설치해 내년 1월 1일부터 무료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모든 시내버스와 공공장소에서 무료로 공공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면 서민 가계의 통신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뿐만 아니라 무선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대중교통 활성화하는 데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료제공:대구시청>

골목경제 살리는 대구형 배달플랫폼 사업자 모집

민간 사업자와 협력 방식, 지역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경감과 지역화폐 온라인 사용 추진

대구시는 과도한 수수료 부담 등 음식 중개 서비스(배달앱)의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한 '대구형 배달플랫폼' 구축 및 운영을 담당할 서비스사업자를 공개 모집한다.

대구시는 지난해부터 배달앱 관련 문제점을 인식하고 다양한 대응방안을 모색해 시장 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간주도 운영 방식을 택했다. 즉, 민간사업자가 개발, 투자, 서비스 운영을 주도하고 대구시는 홍보, 가맹점 및 이용 시민 지원, 지역화폐 연계 등 서비스 활성화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또한, 대구형 배달플랫폼을 활용한 사회적 가치 창출도 적극 추진한다. 민간 서비스 사업자 선정에 있어서 이용 시민 및 배달 기사에 대한 지원, 지역 내 고용 창출, 지역사회 기여 계획도 포함해 평가할 계획이다.

대표 서비스사업자는 대구시에 본사를 둔 기업으로 한정하되, 서비스 개시일까지 이전 또는 법인을 신설할 경우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우수한 역량을 가진 다른 지역의 기업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뒀다.

'대구형 배달플랫폼'의 참여 조건은 ▲중개 수수료 2% 이하 ▲광고비, 가맹비 등 추가 부담 금지 ▲안정적 운영 역량 ▲지역사회 기여도 등이며 서비스사업자 신청은 다음달 16일까지다. 자세한 사항은 대구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대구시는 선정 평가를 거쳐 올해 내에 우선협상대상자를 확정 공고할 예정이며, 관심 있는 기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26일 사업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최운백 대구시 경제국장은 "대구형 배달플랫폼은 음식점의 수수료 부담 경감에서 더 나아가 시민의 일상을 편리하게 만드는 시민 생활 플랫폼으로 발전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디지털경제 시대에 지역 기반의 경쟁력 있는 플랫폼 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대구광역시 스마트시티지원센터(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053-217-5588, 이메일 daegu@iact.or.kr

<자료제공:대구시청>

제8회 학습실천 우수사례 공모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초·중·고등학생의 사교육비가 작년 2019년 한 해 20조가 넘었다고 한다. 아이들의 학업을 위해 유명 학원가 주변으로 일부러 이사를 가는 경우가 허다하며 가정 내 소비지출에서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과반을 넘는 경우도 많아 가정경제에 위협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만한 공모전이 진행 중이다. 대구시교육청에서는 매년 '사교육 없는 학습 실천 우수사례 공모전'(이하 우수사례 공모전)을 개최한다.

올해 8회째를 맞는 이 공모전은 대구시교육청 소속 초·중·고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며 공교육을 기반으로 한 자기주도적 학습실천 우수 사례를 접수받는다.

공모내용은 공교육에 충실한 학습으로 '자신만의 학습 방법'도 좋고 학부모의 교육관을 바탕으로 한 '자녀교육을 실천한 사례' 등도 해당된다. 제출 서류의 경우 공모 신청서 및 실천사례 각 1부씩이며 파일이나 출력물을 메일(kmiya@korea.kr)이나 우편으로 제출(시교육청 초등교육과 사교육 경감 업무담당자)하면 된다.

공모 기간은 11월 27일(금)까지이며 우수작으로 선정되는 학생 및 학부모에게는 대구광역시 교육감 상장(최우수상 2명, 우수상 8명, 장려상 16명)과 함께 부상으로 각각 문화상품권 30만 원, 20만 원, 10만 원을 수여한다. (제1~7회 수상 학부모의 경우, 실천사례 대상 자녀가 다를 경우 응모 가능)

올해는 특히 공모전에 참여하면서 참고할 수 있도록 5회 때부터 지난 대회까지의 기존 수상작을 시교육청-알림마당/공지사항(https://c11.kr/rydbr)에 탑재하고 있어 꼭 공모전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사교육비가 많아 고민이 되거나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아이디어를 얻고 싶다면 해당 내용을 살펴봐도 좋을 듯하다.

이번 공모전은 공교육을 통한 학습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이며 나아가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고 사교육에 대한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원욱 객원기자

대구경북 행정통합, 시민에게 길을 묻다

제20회 대구시민원탁회의 참가자 모집
12월 9일 그랜드호텔에서 개최, 비대면 화상토론(Zoom) 병행 진행

대구시는 12월 9일(수) 오후 7시 그랜드호텔(다이너스티홀)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 시민에게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제20회 대구시민원탁회의를 개최한다.

최근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지역사회의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대구경북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과 불편함과 위기에 노출될 것이라는 반대의 목소리가 공존한다.

행정통합 찬반에 대한 의견은 통합의 장단점과 위험요소 실현 가능성 등의 향후 전망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낙관적 요소와 비관적 요소가 공존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어느 누구도 자신 있게 단언 할 수 없는 사안이다.

이에 대구시는 사회통합적 의사결정이 있기 전, 행정통합에 대한 이해도 높은 의견 나눔이 될 수 있도록 소통의 장을 마련해 시민의 소리를 듣고자 이번 시민원탁회의 주제로 정했다.

이번 시민원탁회의 참가는 대구시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대면 및 비대면 방식을 병행해 진행될 예정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현장 참가 인원은 조정 될 수도 있다.

화상토론이 처음이라도 1 : 1 상담팀을 운영해 기술적 적응을 안내하므로 부담 없이 신청 할 수 있다. 참가 확정 여부는 추후 문자로 안내한다. 참가신청은 대구시민원탁회의 홈페이지(http://www.daeguwontak.kr)나 전화를 통해 12월 7일까지 할 수 있다.

※화상토론 준비물: 스마트폰, 태블릿PC, 노트북, 웹캠이 장착된 PC 등

※접수: 사무국(☎428-4760, 770-5080), 대구시 소통민원과(803-2936)

권영진 대구시장은 "가보지 못한 길에 대한 두려움과 지역적 이해관계가 복잡한 사안으로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시민들의 공감대 위에서만 가능하기에 이번 원탁회의가 행정통합에 대한 서로의 다른 생각을 묻고 알아가는 토론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료제공:대구시청>

쾌적한 교육환경을 위한
'교육환경보호구역' 제도

"이 근처에는 왜 이렇게 술집도, 노래방도 없지?" 길을 가다 유해시설이 유독 없다 싶은 곳을 지나간 적이 있을 것이다. 그런 곳은 조금 더 둘러보면 어김없이 학교가 있다. 교육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생들의 주요 활동 공간인 학교 주변의 일정 지역을 이른바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해 놓았기 때문이다.

'교육환경보호구역' 제도는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 등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공해·위험·유흥·오락시설 등 교육환경 저해행위 및 시설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교육환경보호구역에는 크게 절대보호구역, 상대보호구역으로 다시 나뉘는데 절대보호구역은 학교 출입문과 50m 이내의 거리 공간을 말하고 상대보호구역은 운동장을 포함한 학교 부지와 반경 200m 이내의 공간을 말한다. 당연히 절대보호구역에 들어설 수 있는 허용 시설이 상대보호구역보다 더 까다롭다.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는 각종 오염물질을 다루거나 가축분뇨 시설 등은 들어설 수 없다. 노래방이나 술집 등은 어떠할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가능할 수도, 불가능할 수도 있다. 상대보호구역에 한해 설치허용을 위한 심의를 거쳐 승인이 나면 pc방, 노래연습장, 만화방 등은 설치가 가능해진다. 물론 이것은 초·중·고등학교 근처에 관한 이야기고 대학교 근처는 상황이 조금 다르다. 대학생부터는 성인이므로 앞서 말한 것들에 대해 심의 없이 설치가 가능하다.

그렇다면 시설 제외 심의 신청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우선 시설 제외 신청서 및 주변 약도와 같은 구비서류를 준비해 담당부서인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접수하면 된다. 참고로 달성군 지역의 경우 달성교육지원청 재정평생교육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민원인이 신청 후에는 교육환경보호위원회를 열어 심의 및 의결을 하게 되고 결과가 최종 통보된다.

학교 근처에 상업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예정지가 포함되는지 여부를 미리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나 담당 부서 문의를 통해 확인하여 재산상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이원욱 객원기자

내 고장 문화유적 탐방

송은석 (대구시문화관광해설사)
e-mail: 3169179@hanmail.net

143. 무덤에서 나온 400년 전 편지 172매, 현풍곽씨 언간(1)

1) 프롤로그

한국판 '사랑과 영혼'으로 알려진 '원이엄마' 이야기를 아시는지? 원이엄마 스토리는 1998년 4월 경북 안동에서 분묘 이장 중 한 남성의 관 속에서 나온 편지를 모티브로 한 것이다. 400여 년 전에 작성된 이 편지는 31세 젊은 나이로 요절한 남편 이응태에게 부인이 직접 한글로 쓴 것이다. 관 속에서 다른 편지 몇 장과 함께 부인이 자신의 머리카락과 삼으로 삼은 미투리도 함께 출토됐다. 편지글 중에 자식을 '원이'라고 지칭한 부분이 있어 이 편지를 '원이엄마 편지'라 한다. 구구절절 부부애를 서술한 문장이 얼마나 애틋한지 지금까지도 많은 이들의 눈시울을 적히고 있다.

우리고장에도 이와 유사한 편지가 있다. 400년 전 한 선비와 부인이 주고받은 한글편지로 분량이 102매나 된다. '원이엄마 편지'와는 반대로 남편이 부인에게 보낸 한글편지다. 이번에는 2회에 걸쳐 우리고장에서 출토되어 국가민속문화재 제229호로 등재된 '하씨부인 묘 출토 현풍곽씨 언간'에 대해 알아보자. 언간(諺簡)은 한글편지란 뜻이다.

2) 미라와 함께 출토된 400년 전 편지

지금으로부터 31년 전, 1989년 4월 4일. 달성군 구지면 도동리 뒷산 석문산성 내에서 몇 명의 남자들이 묘 이장 작업을 시작했다. 묘의 주인은 현풍곽씨 곽주의 부인 진주하씨. 이장에 참여한 문중원들과 인부들은 하루면 될 작업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 이 날은 달랐다. 봉분을 걷어내고 '곽(槨)'은 열었는데 '관'이 도저히 열리지 않았던 것이다.[우리 전통 치장법은 땅 속에 관을 에워싸는 곽을 먼저 짜 넣고 그 안에 관을 넣는다] 곽 덮개에는 '진주하씨지묘'라 쓴 400년 전 명정이 마치 어제 것처럼 덮여 있었다.

작업에 참여한 이들은 결국 관 열기를 포기하고 다음날 다시 인원과 장비를 보충해 관 열기를 시도했다. 몇 시간에 걸친 시도 끝에 겨우 관 덮개를 열었다. 그런데 이때 신기한 현상이 있었다. 관 속에서 흰 구름 같은 하얀 김이 새어나왔던 것. 당시 현장 동영상을 편집한 문화재청 영상자료에는 작업에 참여한 하씨 부인의 12세손 곽병도씨가 그 김을 쐬고 5분정도 정신을 못 차렸다는 인터뷰가 담겨 있다.

놀랍게도 관 속에서 미라 상태의 하씨 부인 시신과 함께 여러 부장품이 쏟아져 나왔다. 장의 4, 창의 1, 저고리 9, 치마 2, 버선 18, 속곳 14, 바지(여) 3, 요 2, 이불 3, 배개, 명목, 모자, 돗자리, 빗접과 틀 각 1, 옷감 10, 파손된 옷 10여 점, 조발낭[손톱과 머리카락을 담은 주머니] 등이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한지에 붓으로 쓴 많은 양의 편지 뭉치가 함께 출토된 것이었다.

편지는 모두 172매로 한글 편지 167매, 한문 편지 5매다. 편지는 곽주가 부인 하씨에게 쓴 것이 96매로 가장 많고, 출가한 딸들이 어머니께 쓴 것이 42매, 하씨가 곽주에게 쓴 것이 6매, 기타 출가한 딸들이 시누이에게, 아들이 어머니에게, 안사돈 간에 주고받은 편지 등이다. 편지내용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살펴보기로 하자.

3) 곽주, 진주하씨 부인 그리고 장남 곽이창

곽주[郭澍 · 1569~1617]는 현풍곽씨 19세(世)로 자는 경림, 호는 소계(蘇溪), 현풍 소례마을 출신이다. 할아버지는 문과에 급제하고 내 · 외직을 두루 거친 후 호조좌의와 승지를 지낸 만심재 곽규로 현곽팔주(玄郭八走) 중 한 분으로 이양서원에 제향된 인물이다. 아버지는 문장과 글씨로 이름난 노탄 곽삼길. 곽주는 어려서 대암 박성에게 배우고, 자라서는 한강 정구의 문하에서 공부했으며, 부모에 대한 지극한 효행으로 『현풍군지』에도 올랐다.

곽주의 첫 번째 부인은 광주 이씨로 육일헌 이홍량의 딸이다. 그녀는 곽주와의 사이에서 장남 곽이창만을 놓고 일찍 세상을 떴다. 두 번째 부인 진주 하씨는 참의공 하준의의 딸로 그녀가 바로 172매의 편지를 쏟아낸 묘 주인이다. 진주 하씨는 곽주와의 사이에서 3남 5녀를 두었다. 이렇게 해서 곽주는 광주 이씨 · 진주 하씨 두 부인 사이에서 모두 4남5녀를 두었다. 이 중 장남 곽이창만이 광주 이씨의 소생이고, 나머지 곽의창 · 곽유창 · 곽형창을 포함한 복녜 · 덕녜 · 철녜 · 정냥 · 정렬이는 모두 진주 하씨 소생이다.[자료에 의하면 본래 5남6녀인데, 2명은 일찍 죽었다고 한다]

장남 곽이창은 자가 덕무 호는 모현재(慕賢齋)다. 한강 정구와 현풍현감을 지낸 동명 김세렴에게 수학했다. 학문과 덕행이 높아 조정에서 참봉 벼슬을 제수했으나 나아가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 곽주 집안에서는 장남 곽이창이 트러블메이커(?)였던 모양이다. 학자들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진주 하씨 묘에서 172매의 편지가 나오게 된 결정적 계기를 제공한 이가 바로 곽이창이였다는 것.

곽이창의 아버지 곽주는 벼슬살이 · 타향살이를 하지 않고 평생 고향 소례에서 살았던 인물이다. 조선 전기만 해도 우리나라는 남자가 처가곳으로 장가가서 사는 예가 많았다. 하지만 곽주가 살았던 17세기 직후쯤 되면 여자가 시댁으로 시집오는 문화가 어느 정도 정착됐다. 여하튼 처가살이를 하든 시댁살이를 하든 간에 분명했던 것은 부부가 한집에서 같이 살았다는 것이다.

진주 하씨의 고향은 소례와 그리 멀지 않은 창녕군 이방면 오야마을이다. 그녀는 곽주와 혼인하면서 시댁인 소례에서 첫 살림을 시작했다.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하다. 부부가 한집에 같이 살면서 그처럼 많은 양의 편지를 주고받았다는 사실

현풍 소례에 있는 곽주의 재실 유연재

파묘터를 안내해 준 후손 곽정섭 씨가 파묘터를 손보고 있다

말이다. 다행이 172매 편지 중에 그 의문을 풀어주는 편지가 있었다. 전처 소생 곽이창과 후처 진주 하씨의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 곽주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둘 사이의 관계는 편치 않았다. 결국 곽주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별거'를 결정했다. 논공[지금의 달성공단]에 하씨 부인의 거처를 별도로 마련, 부부가 각각 떨어져 살았던 것이다. 이러한 연유로 두 사람 간에 102매의 편지가 생산된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곽주가 진주 하씨에게 보낸 편지가 96매인데 반해, 하씨가 곽주에게 보낸 편지는 6매에 불과하다는 점이다.[6매 중 4매는 확실하고 2매는 추정] 물론 출토된 172매의 편지가 모두 진주 하씨 묘에서 나온 것인 만큼, 편지 대부분이 진주 하씨가 수신인으로 되어 있는 것은 당연하다 할 수 있다. 그래도 이왕이면 하씨 부인이 곽주에게 쓴 편지가 좀 더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어쩌면 곽주도 부인의 편지를 소중하게 모아두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400년 세월동안 그 편지들이 사라지지 않고 후손들에게 전해진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다. 아무도 모르게 400년 동안 땅 속에 묻혀있다 출토된 하씨 부인의 편지만으로도 감사할 따름이다.

4) 에필로그

'현풍곽씨언간'에는 정말 별의별 이야기들이 다 있다. 곽주와 곽이창이 절에서 공부하는 이야기, 곽주와 곽이창이 함께 과거길에 나서는 이야기, 도동서원에서 제사 지내는 이야기, 손님접대 방법에 대한 이야기, 출산을 앞두고 부인에게 당부하는 이야기, 아들의 관례, 각종 질병에 대처하는 이야기, 여종의 죽음을 위로하는 이야기, 가족의 화목을 당부하는 이야기 등등이다.

[다음호에 계속]

목요단상(木曜斷想)

신 장유유서(新 長幼有序)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최숙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우리 사회 곳곳에는, 특히 스포츠계에는 아직도 구시대의 잘못된 수직적 선배문화가 존재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사회 곳곳에서 아직 발생하고 있는 잘못된 선배문화를 근절시킬 수 있는 범사회적인 대책과 적극적인 실천의지가 매우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에 통과된 법률안은 기존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강화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시책 및 피해자 보호, 성적중심주의 문화 개선을 위한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가대표 훈련관리 지침 8조에 명시된 국가대표 선수의 임무 중 '지도자의 지시와 명령에 복종' 해야 하는 조항도 제정된 지 32년 만에 삭제된다고 한다. 이러한 조치들이 성적지상주의 엘리트체육이 가져온 잘못된 문화, 특히 상대의 약점을 악용하는 사회 부조리를 근절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성적이 최우선되는 사회 분위기에서 수직적 선배문화는 어느 정도 용인되기도 했었다. 그러나 우리는 2002년과 2019년 월드컵 축구를 통해 수직적 선배문화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는 교훈을 얻었다. 히딩크 감독과 정정용 감독은 실력을 우선하는 팀 질서, 수평적 분위기의 팀 문화, 믿음에 바탕을 둔 전술 운영으로 전 세계가 놀란 결과를 만들어 냈다. 후배들의 투지와 열정이 선배들의 경험과 융합되면 얼마든지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잘못된 선배문화가 존재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설명되지 않는다.

長幼有序. 사회적인 순서와 질서를 따르는 풍습은 오래 전승되어 온 우리의 관행이었다. 어른을 존중하고 선배를 따르는 것은 아름다운 풍습이며 보존되어야 할 전통이기도 하다. 그러나 거기에는 선배로서 지켜야 할 책임과 도리도 포함되어 있다. 경험을 통해 얻은 지식과 지혜는 후배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어야 가치가 있는 것이다. 선배의 축적된 경험에서 우러난 지혜는 후배들이 올바른 길을 가게 하는 길잡이가 된다. 당연히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먼저 태어나고 먼저 경험했다는 이유만으로 존중 받을 수는 없다. 선배가 경험한 것이 절대 진리가 되어서도 안 된다. 특히 지금처럼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기술,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지는 상황에서 과거의 경험만으로 미래를 만들 수는 없다. 선배의 지혜가 후배와의 선의의 경쟁을 통해 새로운 가치로 발휘된다면 이것이 진정한 가르침이며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지름길인 것이다.

전통적 가치도 현대적 의미와 조화를 이룰 때 그 본래의 가치가 더욱 빛을 발한다. 長幼有序. 새로운 의미로, 새로운 가치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변점식 기자

국민연금 Q&A

Q. 60세가 넘어 국민연금을 일시불로 받는 경우, 반납하고 매월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없나요?

A. 예, 60세(~65세) 도달을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반납할 수 없습니다.

(19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61~65세에 반환일시금이 지급되나,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60세에도 가능)

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연금수급연령이 되어도 그 기간을 못 채워 연금으로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60세 이후 일시금으로 드립니다. 하지만 이렇게 일시불로 받는 것은 납부한 보험료를 모두 받고 국민연금과의 법률관계를 모두 정리하는 것으로, 60세가 되어 본인의 청구로 일시금으로 지급받으면 다시 가입할 수 없고 결국 반납도 불가능합니다.

다만, 60세가 되어 국민연금 가입자격이 자동 상실되어도 일시금으로 지급받지 않아 가입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65세 전까지 재가입(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여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으며, 최소가입기간(10년)을 채우면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출생연도별 연금수급개시연령

- 1953~1956년생 / 만 61세
- 1957~1960년생 / 만 62세
- 1961~1964년생 / 만 63세
- 1965~1968년생 / 만 64세
- 1969년생~ / 만 65세

국민연금 대구지사 / 국번없이 1355

길을 묻고 답하다 짧은 인생

구 용회 건양대학교 교수

우리 인생은 지나고 나면 짧은 세월 같지만 하루하루 살아가기에는 매우 긴 시간이다. 수치를 표시하는 단위에는 10진법이 쓰이고 있지만 시간을 표시하는 단위는 12진법으로 되어 있다. 하루는 24시간이고 1년은 12개월이다. 이에 따라 인생도 12주기로 나누어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삶을 설계한다면 유익하고 값진 인생무대의 연출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태어나서부터 12세까지는 '세 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는 말처럼 유년기로서 이 때 자신의 성격이 형성된다.

24세까지의 청춘기는 가장 예민한 사춘기인 틴에이저를 포함하며 학습으로 지식을 흡수하고 세상에 나아가 생존경쟁을 벌일 준비를 하는 기간인 것이다. 36세까지의 청년기에는 열심히 일하고 자기의 젊음을 불태우는 행동과 삶을 표현하는 기간으로서 이때는 자기의 직장과 배우자를 선택해야 한다. 여기에서 48세까지의 12년간은 장년기로서 그 때까지 길러온 능력을 꽃피우고 충실한 인생을 꾸려나가는 개화기라고 하겠다.

그 후 60세까지는 실년기로서 꽃이 열매를 맺듯이 인생의 각 분야에 걸쳐 평균적인 목표가 달성되고 자아실현의 뿌듯함을 맛보는 과실기인 것이다. 72세까지는 성숙기로 아직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보아 은퇴하기에는 이르기 때문에 스스로의 경륜과 경험을 살려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기간인 것이다. 72세 이후는 노년기로서 삶의 마지막 단계를 정리하면서 멋있는 노후의 자기 관리를 해야 할 기간이다. 인간은 이 때 완성된 풍요한 인격과 인생의 교훈을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환원하게 된다.

현 시점에서 우리는 노년기까지의 자기가 남겨 놓은 시간을 역산해 보면 의외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실감하게 된다. 즉 시간이 생명이란 것을 깨닫는다. 지난날을 돌이켜볼 때 목표 없는 인생, 나침반 없는 행로가 아니었던가 하고 아쉬워하게 된다.

평균 수명을 80세로 잡는다면 80년간의 인생은 2만 9천 2백일로서 70만 8백 시간이 된다. 그러나 이 중에 3분의 1은 수면시간으로 빼앗기게 되므로 실제로 남은 시간은 1만 9천 4백 17일(46만 7천 2백 시간)에 불과한 것이다. 인생의 절반을 살아온 40세의 장년기에 있는 남자라면 남겨 놓은 시간이 겨우 9천 7백 33일(23만 3천 6백 시간) 밖에 남지 않은 것이다.

이 짧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여러 가지 성공요인이 있겠지만 '충성', '정심', '열정', '전문성'을 갖추려고 노력한다면 반드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집콕 대신 '국립대구과학관 과학놀이터'에서 신나게 놀아보자

날씨가 추워지면서 야외활동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요즘, 코로나 19로 인해 실내놀이터가 불안하고 내 아이를 바깥에서 뛰어놀게 하고 싶다면(학습도 하면서) 달성군에 있는 국립대구과학관 과학놀이터로 가보자. 이곳 야외에 설치된 과학놀이터는 단순한 놀이기구가 아니라 과학을 활용하고 또 과학현상을 몸소 체험할 수 있는 놀이터이자 학습의 장이다.

실로폰 길이에 따라 소리가 달라지는 걸 체험할 수 있는 '해왕성의 전파를 연주하라'에 아이들이 재미있어 하면서 연주를 하고 있다. 소리는 물체의 진동 때문에 발생하는 파동이 공기라는 매개를 통해서 전달되는 현상인데 공기가 없는 우주에서는 소리를 들을 수 없다고 한다. 어려운 원리를 놀이를 통해서 배우니 정말 신기하고 재미있어 한다.

또 다른 인기 놀이는 '볼록거울, 오목거울'이다. 거울에 비친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이 깔깔대는 모습을 보고 기자도 함께 우스꽝스런 모습을 보면서 잠시나마 동심에 세계에 빠져보았다. '천왕성을 움직이는 진자 그네'는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은데 몸무게가 적을수록 체험효과를 크게 느낄 수 있기 때문이란다.

이 밖에도 '흔들흔들 토성 고리의 진자운동을 느끼자', '목성의 위성이 되어보자', '화성을 달리는 천마의 힘, 돌림힘' 등 과학의 원리를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는 획기적인 놀이기구가 정말 다양하게 설치되어 있다. 어린 자녀를 둔 젊은 엄마들에겐 이렇게 좋은 시설이 가까이 있다는 건 정말 크나큰 행운이 아닐 수 없다. 또 디지털 성덕대왕신종과 혼천의, 소간의 등도 만날 수 있으니

천문 관측기구들에 대해서도 더 알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될 것이다.

국립대구과학관 과학놀이터는 5~7세까지만 이용이 가능하고 유아는 반드시 보호자와 동행해야 한다. 유익한 놀이기구가 많으니 한꺼번에 다 체험하기보다 여러 차례 방문해서 조금씩 천천히 체험해 보는 게 좋겠다. 신나게 뛰어놀며 웃는 아이들을 보니 덩달아 행복해지는 시간이었다.

서순옥 객원기자

자녀와 소통공감 체험형 학부모교육

와룡중, 함께 공감하면서 서로 사랑 확인

와룡중학교(교장 정영주)는 이달 4일부터 18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에 아들딸과 함께 공감하고 화음을 맞추어 가면서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체험형 학부모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학부모만을 대상으로 하는 일방적인 교육에서 탈피하여 학부모와 아들딸이 한 팀이 되어 첫째 주에는 '우리 가족 꿈나무 꾸미기'라는 주제로 원예체험활동을, 둘째 주에는 '음악체험을 통한 드림 세계'라는 주제로 타악기 합주를, 셋째 주에는 '진로설정 마인드코칭'이라는 주제로 고등학교 선택하기 활동을 했다.

체험활동 중심으로 이루어진 교육은 24명이 참여한 가운데 모자간, 모녀간 함께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다. 특히 원예체험활동 후에 완성한 작품을 앞에 두고 가진 포토타임이나, 타악기 합주시간에 서로 박자를 맞추는 과정에서는 웃음꽃이 피는 등 자녀와 부모간 더욱 친해지고 소중함을 느끼는 아름다운 모습이 연출됐다.

원예체험을 통한 공감 능력 향상

교육에 참여한 학부모는 "아들과 함께 신나는 체험활동을 통하여 아들을 더 이해하고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다", 학생은 "엄마의 뛰어난 솜씨를 보면서 더욱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소감을 밝히는 등 교육에 참여한 학생, 학부모 모두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만족해했다.

<자료제공:와룡중학교>

고교학점제 연계 진로맞춤형 전공탐색

상인고, 대학생 전공알림단과 함께 진로탐색
통일드론, 연날리기 행사도 진행

고교학점제 연구학교인 상인고등학교(교장 길호욱)는 지난 17일, 코로나19로 체험활동이 제한되는 가운데 1, 2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진로탐색프로그램인 '대학생 전공알림단과 함께하는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KNU(경북대학교) 진로 체험단'인 경북대 학생들과 상인고 학생들의 만남과 소통을 통해 대학생활의 간접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전공소개 및 진학 Q&A를 진행했는데, 학생들이 선호하는 경영, 정치외교, 전자, 간호 등 9개 학과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또한 교내 지도교사들과의 컨설팅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프로그램에서 활동한 내용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진학 방향에 대해 면담하고 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반영했다. 진로와 전공학과에 대한 정보를 탐색하고 맞춤형 선택교육과정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 위한 진로설계와 교육과정 문해력을 높이는 시간이 됐다.

2학년 허세빈 학생은 "평소 동경해 온 대학교의 전공 선배를 만나니 학업에 대한 동기부여와 전공 선택이 좀 더 확실해 진 것 같고 입학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고 만족감을 표현했다.

길호욱 교장은 "교육활동이 제한받는 상황에서 진행된 진로탐색프로그램 행사가 학생들의 꿈을 구체화하고 전공탐색 기회를 가질 수 있어 학생들의 학업동기와 진로역량을 크게 높였다. 앞으로도 진로 진학탐색을 위한 프로그램을 많이 제공하여 학생들의 진로지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상인고는 이밖에도 평화와 공존을 지향하는 미래 세대의 통일 역량 함양을 위해 다양한 학생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학생, 학부모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17일, 외교, 안보, 통일 동아리인 반크(VANK)와 과학 동아리(PEPSI)가 연합하여 통일드론, 연 날리기 대회를 진행했다. 학생들은 사전 활동으로 드론을 조립하거나 연을 만들고 통일을 표현하는 이미지와 문구를 달아 드론 및 연 날리기 대회를 진행했다. 또, 학생들이 선정한 통일 관련 도서를 읽고(Book), 토론(Talk)한 후, 서평(State)을 작성하는 BTS 프로그램도 진행했다.

<자료제공:상인고등학교>

소통, 대통, 만사형통 경암중

안전한 학교 행복한 학생, '공감'과 '소통'으로부터

코로나19로 대면활동이 최소화 되고 소통이 힘든 요즘, 경암중학교(교장 장영희)는 학부모와 공감 및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경암중은 지난달 27일 영어과 학부모 연수 및 ESD학부모 연수를 실시간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해 참여 학부모들이 학교 수업시간 및 동아리 시간 중 학생의 참여활동을 사진과 함께 설명 듣고 질의 응답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뿐만 아니라 이달 17일 수업공개의 날 행사에 전교생의 10%가 넘는 학부모가 참여해 학생들과 함께 방역 및 수업까지 함께 하며 학교 현장을 확인했다. 학부모들은 손 소독 및 자동화된 체온체크, 사회적 거리두기, 학생별 지정 좌석 및 개인물품 사용 등 개인위생 실천을 직접 확인하고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이정임(중2 재학생 학부모)씨는 "선생님과 학생들이 소통이 잘 되고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실험에 참여하고 학습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장영희 교장은 "학부모가 원하는 것은 안전한 장소에서 학생의 배움이 행복한 학교이며,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만족하는 것이 소통을 통한 만사형통이다"라고 하면서 "학생들의 지도에 가정의 관심과 협력이 요구되는 시기"임을 강조했다.

<자료제공:경암중학교>

올해 따듯하게 마무리 하세요

중앙도서관, 12월 오프라인 사람책 열람행사

대구중앙도서관(관장 장철수)은 힘들었던 올해를 마무리하며 지친 마음을 힐링하고 다가올 2021년의 행복과 행운을 기원해 볼 수 있는 12월 오프라인 사람책 열람행사를 운영한다.

12월 11일 운영하는 첫 번째 사람책 열람행사 '수고했어, 올해도'는 올 한해 코로나로 힘들었던 나에게 보내는 위로의 메시지를 담은 캘리그라피 엽서를 써보며, 지친 마음을 힐링하고 2021년의 나를 응원해보는 시간을 가진다.

12월 17일 실시 예정인 두 번째 사람책 열람행사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리스 만들기'에서는 다가오는 크리스마스를 기대하며 장식용 크리스마스 리스를 만들어 본다. 크리스마스 리스는 문에 걸어두면 나쁜 기운은 물리치고 행복과 행운을 들여보낸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 다가올 크리스마스와 2021년의 행복 및 행운을 기원하는 즐거운 시간이 될 것이다.

12월 사람책 열람행사는 중앙도서관에서 오프라인으로 운영하며 모집 일정은 24일부터 다음달 14일로 열람행사별로 모집기간이 다르다. 참가신청은 중앙도서관 홈페이지(http://library.daegu.go.kr/jungang)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한편 사람도서관은 종이책이 전달하는 지식과 정보를 넘어 사람책의 생생한 지식, 경험 등을 대출자와 대화형식으로 진행하는 나눔·소통·공감의 신개념 도서관 서비스로, 중앙도서관에서는 2014년부터 259명의 사람책이 활동 중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도서관 평생교육정보센터(☎231-2049)로 문의하면 된다.

<자료제공:중앙도서관>

도원중 고영문 교사, 대한민국 발명교육대상 수상

22년간 발명교육에 기여

도원중학교(교장 변혜경) 고영문 교사가 대한민국 발명교육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지난 13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개최된 '제9회 2020 발명교육 컨퍼런스'는 발명교육 유공자를 격려하고, 최신 발명교육 정보 공유 및 우수사례 확산을 위한 발명교육 최대의 축전이다. 이 행사에서 고영문 교사는 22년간 발명교육 및 발명 웹 사이트 운영을 통한 과학발명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고영문 교사는 1997년 대구지역 최초로 발명교육센터를 설립하여 22년간 운영해 오고 있다.

또한 대명발명교육센터 및 범일발명교육센터에서 발명교육전담 교사로 15년간 근무하며 각종 교재 집필, 발명연구회 조직 및 운영 등 발명을 통한 과학교육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

고영문 교사는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되어 영광이다. 앞으로도 학생은 물론 일반인들에게도 발명교육이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대한민국발명교육대상(왼쪽 첫번째 교사 고영문)

변혜경 교장은 "고영문 선생의 수상은 학교 발명교육을 포함한 과학교육의 중요성을 재인식하는 좋은 계기가 되고 있다. 인공지능(AI)이 할 수 없는 발명 분야에 학생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융합수업을 통해 확산적, 창의적 사고를 키워주고, 발명교육의 저변 확대를 위한 환경 조성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수상의 의미를 더했다.

<자료제공:도원중학교>

대구전자공고
전국조정경기대회 '종합우승'

대구전자공업고등학교(교장 최경묵) 조정부는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에서 개최된 화천평화배 및 장보고기 전국조정경기대회에서 종합우승이라는 쾌거를 이뤘다.

지난 7월 화천에서 치러진 제14회 화천평화배 전국조정경기대회에서 고등부 총 6개 종목 중 5개 종목 출전하여 경량급 싱글스컬, 경량급 더블스컬, 싱글스컬, 쿼트러플스컬 4종목에서 1위, 무타페어 3위에 입상하여 종합우승을 했고, 11월 부산에서 개최된 제46회 장보고기 전국조정경기대회에서는 5개 종목에 참가하여 싱글스컬, 무타페어에서 1위, 쿼트러플스컬, 경량급 싱글스컬 2위, 경량급 더블스컬 3위로 종합우승을 했다.

전염병 관리 지침에 따라 경기장에서의 출입 체크, 발열 검사, 무관중 경기로 이루어져 차분한 분위기로 진행되었으며 시상식도 생략되고 본부에서 바로 수령하는 등 2019년도와 사뭇 다른 분위기에서 치러졌지만 전국에서 온 선수들이 경기에 임하는 열기는 뜨거웠다.

전자공고 조정부는 창단 이후 올해 처음으로 화천평화배 전국조정대경기대회 종합우승에 이어 46회 장보고기 전국조정대회에서 두 번째 종합우승을 이뤄내 앞으로의 활약이 더욱 기대된다.

<자료제공:대구전자공업고등학교>

무기력한 우리 아이 "어떻게 지도할까?"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아무것도 하고 싶어 하지 않고 마냥 멍하게 있는 아이들이 있다. 늦둥이 초등학생 자녀를 둔 김선옥(47) 씨는 요즘 고민이 많다. 매년 상담주간이 되어 막내의 학교 상담을 가보면 꼭 듣는 말이 수업 시간에 엎드려 있는 시간이 많다는 말이다. 교과서는 학습 문제를 거의 손도 대지 않아 거의 새 책 수준이다. 매사에 의욕이 없는 아이들의 유형에는 무엇이 있고 각각의 해결책은 어떤 게 있을까?

먼저 출발이 늦는 경우의 아이이다. 무기력한 아이의 유형 중에서도 시간을 주면 충분히 잘 해내는 아이의 경우가 바로 이 경우이다. 출발을 어려워하지만 구체적인 지침을 내려주면 자신이 가진 역량을 이용해 과제 마무리까지 해내는 아이로 사실 완벽하게 일을 해내려는 꼼꼼함도 가지고 있는 아이 유형이다. 잘해보라는 등 두루뭉술한 말보다는 세세한 방법을 옆에서 알려주고 결과에 대한 칭찬을 해준다면 무기력함을 감소시킬 수 있다.

다음은 학습 외적인 원인으로 인해 우울하여 무기력한 경우이다. 아이들도 어른 못지않게 스트레스를 받으며 고민을 쉽게 털어놓지 못하고 속으로 앓는 수가 있다. 담임 선생님이나 가족 구성원이 아이에 대해 항상 관심을 가지고, 우울해 보이는 징후를 보이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가령 가족이나 친구와의 관계 문제인지, 신체적으로 어디 아픈 곳은 없는지 등 원인을 파악해 대처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는 '학습된 무기력'이다. 반복된 실패 경험으로 인해 의욕이 없어 널브러지는 경우인데, 체념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있는 경우가 많다. 쉽게 포기하기보다는 기존의 실패에 대한 원인을 스스로 깨닫도록 조언해 주자. 작은 성공 경험부터 주면서 잃어버린 자신감을 심어주고 이를 통해 학습된 무기력을 점차 감소시킬 수 있다.

최근 코로나19로 집에서 혼자 원격수업을 듣는 경우가 많아진 탓에 무기력한 아이들은 더 무기력해지기 쉬워졌다. 심지어 출석 댓글만 달거나 재생하기 클릭만 해놓고 수업은 아예 안 듣는 경우도 허다하다. 위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유형들을 잘 살펴보고 그에 맞는 적절한 대처를 어릴 때 해주어야만 자칫 무기력한 어른으로 성장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원욱 객원기자

혜은이와 함께하는 '콘서트 7080'

11월 28일(토) 오후 7시, 웃는얼굴아트센터 청룡홀

(재)달서문화재단(이사장 이태훈) 웃는얼굴아트센터 DSAC 브랜드 콘서트 다섯 번째 공연 '콘서트 7080, 혜은이&MUJIN팝스밴드'가 28일 오후 7시 웃는얼굴아트센터 청룡홀에서 개최된다.

DSAC 브랜드 콘서트는 공연 전 장르를 망라한 웃는얼굴아트센터만의 특색을 나타낼 수 있는 개성적인 콘셉트의 공연으로 시민들의 문화 취향이 결합된 공연이다.

이번 공연은 1970대 큰 인기를 얻었던 혜은이와 현악기와 브라스의 균형있는 밴드 구성을 통해 이상적인 하모니를 만드는 12인조 엠유제이아이엔 팝스밴드가 함께한다.

대중음악뿐만 아니라 재즈, 클래식, 뮤지컬 등의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개성있는 편곡과 연주로 들려주는 엠유제이아이엔 팝스밴드는 보컬리스트 이건과 함께 7080세대의 추억과 향수를 불러일으킬 가요들로 오프닝 무대를 꾸밀 예정이다.

이후 본 무대에서는 원조 국민 여동생 혜은이가 주옥같은 히트곡들을 선보인다. 혜은이는 1975년 데뷔곡 '당신은 모르실거야' 부터 메가히트를 기록했고, 이어 '진짜 진짜 좋아해', '당신만을 사랑해' 등 작곡가 길옥윤과 호흡을 맞춘 곡들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MBC 10대 가수 가요제에서 1977년, 1979년 가수왕에 오르며 당대 최고 인기 가수임을 입증했으며, 지난 인기에 머물지 않고 활발한 활동으로 현재까지 많은 관객들을 만나고 있다.

이번 공연을 준비한 웃는얼굴아트센터 이성욱 관장은 "올해 콘서트 7080은 국민디바 가수 혜은이의 히트곡들을 감상할 수 있는 무대를 마련했다"며 "중장년층에게는 옛 추억을 불러일으키고 젊은 세대에게는 부모 세대가 즐겨 부르던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로 세대간 문화공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료제공:달서문화재단>

'2021 올해의 청년작가' 공개 모집

대구문화예술회관, 12월 7~18일까지

대구문화예술회관은 지역 미술문화의 창조적 발전을 이끌어 나갈 신진 작가들의 열정과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지원하고, 다양한 조형언어 수용으로 한국 미술의 미래를 확립하고자 '2021 올해의 청년작가' 전의 작가 공모를 진행한다.

올해의 청년작가전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만 25~40세 사이의 청년작가를 발굴 및 지원함으로써 지역 미술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1998년부터 매년 진행해 오고 있는 지역 청년작가 창작지원 공모 전시 프로그램이다.

이번 공모의 응모 분야는 평면(서양화, 서예 등), 입체(조소, 공예 등), 미디어(사진, 영상 등) 등 시각예술 전 부문으로,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1981~1996년생의 작가라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선정 인원은 총 5명이며, 접수 기간은 오는 12월 7일부터 18일까지 12일간이다.

심사 결과는 2021년 1월 중 발표할 예정이며, 선정된 작가들에게는 창작 지원금 500만원과 전시 팸플릿 제작, 1인당 1개 전시실 제공, 평론가 매칭 및 평론 원고비 지원 등 전시 개최에 필요한 제반 사항의 혜택을 제공한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053-606-6139, 6152) 또는 문예회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료제공:대구문화예술회관>

알쏭달쏭한 우리말 '와이로'

요즘은 외래어 사용이 점점 늘어간다. 순수한 우리 한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인터넷의 발달과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우리말이 사라지는 것 같아 안타까울 때가 많다. 특히 인터넷 댓글창을 보면 국적 불명의 언어들이 난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역사가 일제강점기를 지나면서 고착화된 일본어 사용자제의 목소리가 높지만 알게 모르게 생활 속 깊숙이 들어와 있는 일본어가 많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쓰는 언어 중에 언뜻 듣기에는 일본어처럼 들리지만 알고 보면 우리말인 '와이로'란 말이 있다. 그 유래가 재미있어 소개해볼까 한다.

고려시대 의종 임금이 홀로 암행을 나섰다가 날이 저물어 깊은 산중을 헤매고 있을 때, 외딴 민가를 발견하고 하룻밤 묵기를 청하였다 하지만 집주인이 조금 더 가면 주막이 있다고 거절 하는 바람에 돌아서 나오는데 그 집 대문에 붙어 있는 글귀가 예사롭지 않았다.

'유아무와 인생지한'(唯我無蛙人生之恨) "나는 있는데 개구리가 없는 게 인생의 한이다"

도대체 개구리가 무엇을 뜻하는지 의종은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가 없었다. 주막에 들러 요기를 하고 주모에게 그 외딴집에 관하여 물어보았다. 얘기인즉 그는 과거에 여러 차례 낙방하고 마을에도 잘 내려오지도 않고 집안에 박혀 책만 읽으면서 살아간다고 한다. 궁금증이 발동한 의종은 발길을 돌려 외딴집 가서 사정사정한 끝에 하룻밤을 묵어갈 수 있었다. 잠자리에 누웠지만 집주인 선비의 글 읽는 소리에 잠도 안 오고 궁금증을 참을 수 없어 주인장 뵙기를 청하였다. 그리고 궁금하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다.

옛날에 목소리 예쁜 꾀꼬리와 목소리가 탁한 까마귀가 살고 있었는데 하루는 까마귀가 꾀꼬리에게 노래 시합을 하자고 제의를 했다. 꾀꼬리는 어이가 없었지만 흔쾌히 승낙하고 3일후에 시합을 하기로 하고 심판은 백로가 맡기로 하였다. 꾀꼬리는 자신만만했지만 그래도 3일 동안 더 아름다운 목소리를 갖고자 열심히 노력했다. 그런데 까마귀는 노래 연습은 하지 않고 논두렁의 개구리만 잡으러 돌아다니고 있었다. 약속한 3일이 지나 드디어 결전의 날이 돌아왔다. 꾀꼬리는 고운 목소리로 최선을 다해서 노래를 부르고 까마귀도 나름대로 노래를 했다.

하지만 결과는 어이없게도 백로가 까마귀의 손을 들어 주었다. 꾀꼬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이 패배한 이유를 알 수가 없었다. 그러나 시간이 얼마쯤 흐른 후에 꾀꼬리는 까마귀에게 패한 이유를 알아냈다. 까마귀는 노래 연습 대신 논두렁에서 잡은 개구리를 백로에게 뇌물로 갖다 바쳐 실력은 뒤쳐지지만 꾀꼬리를 이길 수 있었다고 한다. 꾀꼬리는 크게 낙담하고 실의에 빠졌다. 그 후로 개구리 '와', 이로울 '이', 백로 '로'자를 써서 와이로란 말이 생겼다고 한다.

의종은 이야기를 듣고 선비에게 며칠 후면 임시 과거가 있어 자신도 개성으로 올라가는 중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궁으로 돌아가 즉시 임시 과거를 열었다. 과거의 시제가 바로 '유아무와 인생지한' 여덟 글자였다. 다른 사람들은 무슨 뜻인지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이 선비는 단박에 답을 적어 내어 장원급제하여 나중에 유명한 학자가 되었다고 한다. 그분이 바로 백운거사 이규보이다. 고려중기의 동명왕편을 비롯한 많은 저서를 남긴 문인이다. 이규보 선생이 불의와 불법으로 뇌물을 갖다 바친 자 에게만 과거 급제의 기회를 주어 부정부패로 얼룩진 나라를 비유해서 쓴 말이 바로 오늘날의 '와이로'가 된 것이다. 일본어 같지만 우리말인 '와이로' 알고 사용하면 좋을것 같다. 이윤영 객원기자

대구예인회 · 광주미술작가회 교류전

세 번째 달빛 교류전

(재)달서문화재단(이사장 이태훈) 웃는얼굴아트센터에서는 24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대구예인회·광주미술작가회 교류전인 '세 번째 달빛 교류전'을 개최한다.

대구의 옛 이름 달구벌에서 '달', 광주의 다른 이름 빛고을에서 '빛'을 따서 명명된 '달빛'을 담은 이번 달빛 교류전은 영·호남 지역 작가 58명의 참여로 달서 구민들에게 다양한 미술세계의 시선과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기획전시이다.

대구예인회는 2015년 '강북예인전'을 시작으로 대구지역에서 활동하는 서양화가들이 모인 단체로, 한국구상미술의 현장을 보여 주고자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특히 지역 교류전의 활발한 활동을 추진해 오고 있는데, 대구예인회가 처음 지역 교류전을 열기위해 함께 손을 잡은 단체가 광주미술작가회이다. 광주미술작가회는 2016년 광주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18명의 중견작가 중심으로 창립 이후 전국범위로 활발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는 단체이다. 대구예인회와 광주미술작가회의 달빛 교류전은 2016년은 대구에서 2017년은 광주에 교류전시를 개최했다.

2020년 코로나19로 인하여 침체된 지역예술에 활력을 불러 일으켜줄 이번 '세 번째 달빛 교류전'은 수준 높은 작품들을 제공함으로써 대구미술 발전에 큰 보탬이 되리라 기대한다.

자세한 문의는 웃는얼굴아트센터 문화기획팀(053-584-8720) 및 (재)달서문화재단 웃는얼굴아트센터 홈페이지(www.dscf.or.kr) 참고.

장정희, 꿈꾸는나무_Mixed media on canvas_72.7×60.6 cm_2020

<자료제공:달서문화재단>

'메이드 인 대구 II' 작가와의 대화

곽훈, 권정호, 김영진, 박두영, 박철호, 서옥순, 송광익, 최병소 작가 참여

대구미술관(관장 최은주)은 80년대 이후 대구미술의 다양한 실험정신과 발자취를 살펴보기 위해 내년 1월 3일까지 '메이드 인 대구 II'를 개최하고, 전시 연계프로그램인 '작가와의 대화'를 진행한다.

이와 연계해 대구미술관은 대구현대미술 저력과 근원에 대해 탐구하고, 전시 의미를 더하고자 '작가와의 대화'를 실시한다. 28일 오후 2시 대구미술관에서 진행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대구미술화단', '개념 미술의 현장-1970년대 대구미술', '서구문화를 통해 살펴 본 한국 미술'을 주제로 대구미술계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어본다.

2021년 1월 3일까지 진행하는 '메이드 인 대구 II' 전시장에서는 참여 작가들의 인터뷰 영상을 만날 수 있다. 10~15분간 이어지는 영상은 출품작 설명, 대구미술에 대한 작가 생각을 담고 있다. '작가와의 대화'에서는 인터뷰에서 미처 담지 못했던 이야기와 70년대 상황에 대해 심도 있게 이야기 나누고, 이를 아카이빙 하여 대구미술을 연구한다.

권정호(1944년~, 대구), 송광익(1950년~, 대구) 작가는 지난 15일 '대구미술화단'을 주제로 당시 협회와 그룹, 그리고 대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서클 활동 등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려주었다. 21일에는 김영진(1946년~, 대구), 박두영(1958년~, 대구), 최병소(1943년~, 대구) 작가와 함께 '1974년 대구 현대 미술제'를 중심으로 당시 대구에서 진행했던 개념미술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루었다.

28일 2~4시에는 곽 훈(1941년~, 대구), 박철호(1965년~, 경북 의성), 서옥순(1965년~, 대구) 작가와 함께 서구문화와 한국 현대미술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눈다.

모든 자료는 대구미술관 유튜브에서 다시 보기 가능하며, 대구미술관의 중요한 아카이브 자료로 연구, 보관할 예정이다. 문의) 053-803-7870

<자료제공:대구미술관>

'달성, 꽃피다 展' 열려 제6회 달성군미술협회 초대전

달성군청에서는 23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여든 세 번째 마중으로 제6회 달성군미술협회 초대전 '달성, 꽃피다展'을 달성군청 참꽃갤러리에서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달성미술협회 회원 27인이 참여하여 회화에서부터 입체 조형 등 다양한 작품 30점을 전시한다. 달성 작가들의 활발한 교류를 도모하고 예술의 순수 정점을 향해 새롭게 진화하고 있는 작가들의 질 높은 미술작품을 소개함으로써 다채로운 시각예술의 아름다움 속에 미적 즐거움을 공유할 수 있다.

관람 시간은 평일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관람료는 무료이고 관람자에게는 팸플릿을 무료로 제공한다.

코로나19 장기화 대비 호흡기전담 클리닉 지정

달서구, 코로나19 안심병원 2곳 호흡기전담 클리닉 전환

달서구(구청장 이태훈)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기 위해 지역 내 안심병원으로 지정 운영하던 의료기관 2곳을 호흡기전담 클리닉으로 전환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달서구는 그동안 코로나19 감염병 안심병원으로 지정 운영하던 삼일병원(병원장 김지건), 일민의료재단 세강병원(병원장 김징균) 2곳을 호흡기전담 클리닉으로 전환하여 운영한다.

이번 호흡기전담 클리닉 지정은 코로나19 감염병이 장기화 되는 상황에서 겨울철 독감, 감기 등 호흡기 환자들이 일선 의료기관에서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높아 호흡기 · 발열 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호흡기전담 클리닉 2곳에는 사업비 2억원을 지원하여 검체 채취와 구조적인 동선 분리가 가능한 비접촉 형태로 운영되고, 환기 등 환경관리 요건을 갖춘 시설과 방사선 촬영장비 등 호흡기환자 진료에 필요한 설비를 모두 갖췄다.

특히, 삼일병원은 검체실 1개소를 추가로 설치해 일반인 검체와 유증상자 검체를 분리하여 채취할 수 있도록 했고, 세강병원은 1-day 입원실을 설치해 수액을 맞거나 주사 처방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했다.

호흡기전담 클리닉은 상기도 감염, 인플루엔자 증상 환자를 진료 후 코로나19 의심 환자는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일반 환자는 별도의 진단과 처방을 하게 된다.

내년 초에는 겨울철 호흡기 진료 환자가 늘어날 경우에 대비해 월배권, 성서권역에 호흡기전담 클리닉을 추가 지정하여 운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태훈 구청장은 "호흡기전담 클리닉 운영으로 호흡기, 발열 증상이 있는 지역 환자들이 안심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효율적인 의료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 확산 차단과 주민 건강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말했다.

<자료제공:달서구청>

광고문의
053. 572-6000

건강칼럼

보생조한의원 원장 조현정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대학수학능력시험, 청심환 먹어도 될까?

어느덧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2020년 12월 3일 예정).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수험생들과 학부모들 모두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힘든 한해를 보냈다. 이전보다 집중해서 공부하기도 힘들고 컨디션 조절에 어려움을 겪으며 수능날이 다가올수록 부담감과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수험생들이 많다. 불안함과 초조함이 증가하면서 집중력이 떨어지고 불면증, 소화불량, 구역감, 복통, 두통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이런 증상이 지속되면 총명탕, 공진단, 우황청심환 등을 처방받기 위해 한의원에 내원하는 학부모님들이 많다. 복신(茯神), 석창포(石菖蒲), 원지(遠志)로 구성된 총명탕은 뇌혈류를 개선하여 학습능력과 기억력을 향상시켜 수험생 보약으로 다용되어 진다. 총명탕만 처방되기보다 보통 체질과 몸상태에 따라 여러 약재가 가감되어 진다. 사향공진단, 목향공진단은 체력저하로 집중력이 떨어지는 수험생들에게 도움이 된다. 당일만 복용하는 것보다 1-2주정도 꾸준히 복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최근 공진단에 총명탕을 가감한 총명공진단도 수험생을 둔 학부모님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다.

청심환은 불안이 심하고 심장이 뛰는 증상이 심한 수험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약력이 너무 쎄면 몸이 과하게 이완되어 졸음이 오거나 나른해질 수 있어 미리 반 알정도 복용해보고 괜찮은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이외에도 온도차로 인해 몸살기운도 느껴지고 피곤할 때에는 쌍화탕을, 선천적으로 허약하고 피로감을 심한 경우 경옥고를 장복하는 것도 좋다.

하지만 약을 복용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해오던 생활습관을 유지하는 것이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때문에 수면 시간을 줄여서 무리하게 공부하게 되면 생활 리듬이 깨져서 오히려 수능 날 충분히 실력을 발휘할 수 없다. 수능시간에 맞춰 공부와 휴식을 병행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휴식시간에는 게임이나 sns처럼 뇌를 자극하는 행동대신 명상, 스트레칭 등을 하면서 충분히 몸을 이완시켜주는 것이 좋다.

평상시 속이 약한 수험생들은 밀가루나 차가운 음식들처럼 위장관의 피로를 높이는 음식을 피하고, 생강차, 매실차, 계피차처럼 속을 따뜻하게 해주고 소화를 돕는 차를 마시는 것이 좋다. 신경이 예민한 학생들은 커피나 에너지음료 섭취를 줄이고, 기울을 풀 수 있는 진피차(귤껍질), 대추차, 국화차를 마셔주면 좋다. 이 계절에 감기가 자주 걸리고 호흡기가 약한 수험생들은 가습기를 돌려 호흡기가 건조하지 않도록 하고 길경차(도라지), 모과차, 생강차를 마셔주면 좋다.

시험을 보는 도중 불안과 초조함이 심해져 집중이 잘 되지 않고 속이 울렁거리고 두통이 생긴다면 손목에 위치한 신문(神門), 손바닥에 위치한 소부(少府), 엄지와 검지사이의 합곡(合谷), 미간사이에 위치한 인당(印堂)혈 등을 자극하는 것도 움이 된다.

마지막까지 컨디션 관리를 잘해서 후회 없이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고 올 수 있길 바란다.

대구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607 / 보생조한의원 ☎053-564-0401

엄마와 아기는 잘 있나요?

성주, 생애 초기 건강관리 사업 시행

성주군(군수 이병환)은 아동의 공평하고 건강한 출발을 위해 지난 7월부터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한 영유아 전담 간호사 · 사회복지사가 출산 후 8주 이내의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와 아기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모유수유, 아기돌보기 등 육아관련 교육 및 상담을 제공한다.

성주군에 거주하며 성주군 보건소에 등록된 임신부로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무료로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우울감이나 스트레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가정은 위험 평가 후 영아가 24개월이 될 때까지 지속적인 방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성주군은 앞으로도 영유아 건강 간호사를 통한 일차 수준의 간호 및 건강증진 교육과 전담 사회복지사를 통한 다양한 지역사회 복지 · 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양육지지 환경 조성과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 및 산모의 양육 역량이 강화되어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이 만들어 질 것으로 기대한다.

성주군에 거주하는 임산부는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생애초기 건강관리실 ☎930-8336~8)

<자료제공:성주군청>

건강중심 행복성주 만들기

찾아가는 행복병원 운영

성주군은 17일 벽진면 봉학보건진료소에서 의료취약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행복병원을 운영했다. 찾아가는 행복병원은 보건소와 김천의료원 협력으로 진단장비가 갖춰진 이동진료차량을 이용하여 병원가기 힘든 지역 주민을 직접 찾아가 무료로 시행하고 있으며, 전문 의료진 10여 명이 혈액검사와 갑상선 및 간 초음파 검사 등 전문 진료를 시행하고 있다.

대상자 중심의 맞춤형 전문 진료로, 결과에 따라 정밀검사 및 기타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실질적 생계 곤란자에 대해서는 김천의료원과 연계해 취약계층 의료지원 안전망사업을 통해 1인당 200만 원 이내로 지원하는데 현재까지 67명이 지원을 받았다.

보건소 관계자는 "질병 조기발견과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의 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찾아가는 행복병원을 운영해 의료취약 계층이 소외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료제공:성주군청>

11월 30일 ~ 12월 6일

재미로 보는 운세

36년생 좀 더 멀리 내다보고 일을 해야 한다. 48년생 누군가와 협력해야 할 일이 생긴다. 60년생 어려운 일을 피하고 사람들과 화합한다. 72년생 윗사람의 일을 대신 처리하게 된다. 84년생 가까운 사이일수록 공과 사를 구분해야 한다. 96년생 자만하면 인심을 잃는다. 한발 물러서서 겸손하면 편안하리라.

37년생 어린 사람과 다투면 손해를 본다. 49년생 말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라. 구설수를 조심하라. 61년생 자신을 낮추고 근신해야 일이 풀린다. 73년생 새로운 일에 관심을 가지지 마라. 현상유지가 중요하다. 85년생 조금만 참으면 행운이 찾아올 것이다. 97년생 바쁘게 움직이는 만큼 이익이 생긴다.

38년생 손해 볼 일이 모두 끝났으니 이제 받기만 하면 된다. 50년생 옳다고 생각하는 일은 서둘러야 좋은 성과를 얻는다. 62년생 다소 경제적인 손실은 있지만 명예를 얻게 되는 운이다. 74년생 남을 도울 때에는 조건 없이 도와야 나중에 후회가 없다. 86년생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많으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 98년생 고생은 하는데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 한 박자 쉬어갈 때이다.

39년생 다른 사람의 일에 개입하면 득보다 실이 많으니 쓸데없이 끼어들지 말라. 51년생 대인관계에 신경을 쓰지 않으면 귀인이 나를 떠나가게 된다. 63년생 사사로운 인정에 매달리면 괴로워지니 공과 사를 명확하게 구분하라. 75년생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되면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빨리 손을 떼는 것이 현명하다. 87년생 자신의 실수를 빨리 인정해야 한다.

40년생 멀리 내다보고 큰 것을 바랄 때 원하는 것을 이룬다. 52년생 공동투자를 하거나 협력해야 할 일이 생길 수 있다. 64년생 험한 일을 스스로 피해가니 주변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한다. 76년생 윗사람이 벌인 일을 대신 처리하게 되니 바쁜 시기이다. 88년생 적극적으로 행동할 때 행운이 찾아온다. 움직여야 한다.

41년생 되도록 큰물에서 놀아야 얻는 것이 많을 것이다. 53년생 좋고 나쁜 것은 본인의 마음에 달려 있다. 65년생 부성한 행동을 하면 일이 꼬일 수 있으니 주의하라. 77년생 조금만 노력하면 모두가 즐거울 수 있다. 89년생 이성문제로 인하여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구설수를 조심하라.

42년생 주변과의 조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너무 튀면 공격을 당할 수 도 있다. 54년생 일의 순서가 정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 먼저 순서부터 정해야 한다. 66년생 실패를 두려워하면 반드시 실패한다. 경험이 많은 만큼 실수도 줄어든다. 78년생 어려운 일도 시간이 지나면 풀린다. 서두르다 보면 반드시 실수가 생긴다. 90년생 이성으로 인해서 손해를 볼 수 있으니 이성을 멀리하라.

43년생 무엇을 하든지 뒷날을 생각하고 해야 한다. 55년생 자존심을 조금만 버리면 일이 잘 풀린다. 67년생 아랫사람에게 친절하면 도움을 받게 된다. 79년생 일이 잘 풀리니 편안하게 지내게 된다. 91년생 너무 열심히 해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44년생 부성하게 얻은 재물은 하루아침에 나갈 수 있다. 56년생 새로운 일을 벌이지 말고 지금까지 하던 일에 충실 하라. 68년생 남 좋은 일을 해야 하니 공명을 탐하지 말라. 80년생 작은 욕심으로 큰 것을 잃게 될 수 있으니 주의하라. 92년생 자신의 위치에서 묵묵히 노력해야 한다. 기회가 곧 다가온다.

45년생 무리하지 않고 미리 대비하면 이익이 생길 수 있을 것이다. 57년생 큰 이익은 없지만 작은 이익은 반드시 찾아오니 노력해야 살 수 있다. 69년생 거창한 계획은 쉽게 무너지게 된다. 눈앞의 일에만 집중해야 한다. 81년생 힘 있는 사람이 도와주니 어렵지 않다. 어려운 일도 성취가 따른다. 93년생 지금까지 해오던 일을 하는 것은 좋지만 변화를 주게 되면 사기를 당할까 두렵다.

46년생 나중을 위해서 기력을 보충해야 할 시기이니 나서지 말라. 58년생 생활의 여유가 생기지만 주의하지 않으면 손해를 볼 수 있다. 70년생 거래처가 바뀌고 아랫사람과의 교류도 없어질 수 있다. 82년생 모든 일이 원만하게 마무리 되고 주변의 인심을 얻게 된다. 94년생 다른 사람들을 위해 희생하니 인기가 상승한다.

47년생 일을 할 때에는 항상 다음을 생각해야 한다. 당장이 문제가 아니다. 59년생 자존심을 버리고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 재물로 보상을 받게 된다. 71년생 아랫사람들과 친해져야 도움을 받는다. 베푸는 것이 곧 이득이 있다. 83년생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시기이다. 욕심을 부려도 무방하다. 95년생 작은 일은 이루고 큰일은 이루어지지 않으니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

제공: 당신의 멘토, 운조아(www.unjoa.com)

주간 일기예보

11월 26일 목요일	11월 27일 금요일
최저 3℃ 최고 14℃	최저 4℃ 최고 11℃
11월 28일 토요일	**11월 29일 일요일**
최저 -1℃ 최고 7℃	최저 -2℃ 최고 8℃
11월 30일 월요일	**12월 1일 화요일**
최저 -1℃ 최고 10℃	최저 -2℃ 최고 10℃

톡톡 시사상식 조문 방법

☞ 조문(弔問)은 조상(弔喪)과 문상(問喪)을 합친 말로, 조상은 고인의 죽음을 슬퍼하며 빈소에 예를 갖추는 것이며, 문상은 상을 당한 상주를 위로하는 것이다. 따라서 장례식장에 갈 때는 '문상 간다'라는 표현보다는 '조문 간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보다 정확하다.

▶조문 절차

①장례식장(상가)에 도착하면 조객록(弔客錄)에 서명을 한 뒤, 문밖에서 외투나 모자 등을 미리 벗어 둔다.

②장상주에게 가볍게 목례를 하고 분향 혹은 헌화를 한다. 단체로 왔을 경우에는 대표로 한 명만 분향 또는 헌화를 하는 것이 좋다.

③영좌 앞에서 일어서서 잠깐 묵념 또는 두 번의 절을 한다. 특히 절을 하기 전에는 공수(拱手) 자세를 취하는데, 공수는 두 손을 앞으로 모아서 잡는 것을 이른다. 공수는 성별에 따라 다르며, 평상시(平常時)와 흉상시(凶事時)가 다르다. 조문 시에는 남자는 오른손을 위로, 여성은 왼손을 위로 하여 두 번 절을 한다.

④영좌에서 물러나 상주와 맞절을 하거나 정중히 고개를 숙여 예를 표한다. 평소 안면이 있는 경우라면 상주에게 조문 인사말을 건네는데, 이때는 낮은 목소리로 짧게 위로의 말을 하되, 고인과 관련된 질문을 많이 하는 것은 좋지 않다.

(예) '뭐라고 위로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얼마나 상심이 크십니까?', '얼마나 슬프십니까?',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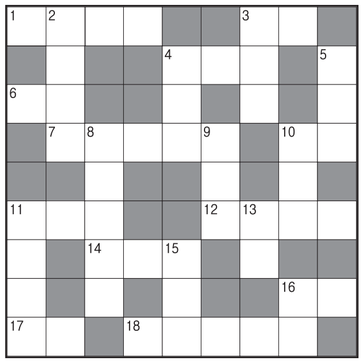
※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어 주는 말이다. 여기서 삼가는 '존경하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고 정중하게'라는 의미를 가진 부사이며, '고인(故人)'은 돌아가신 분을, '명복(冥福)'은 돌아가신 뒤에 저승에서 받는 복을 뜻한다.

⑤조문을 끝내고 나올 때에는 두세 걸음 뒤로 물러난 뒤, 몸을 돌려 나오는 것이 예의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가족과 함께 풀어보세요.

제1,000회



◑ '가족과 함께 풀어보세요' 낱말퍼즐을 만들어 푸른신문으로 보내주세요. 채택된 분께는 작은 선물을 우송해 드립니다.

▶보내실 곳 : 42640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323길 13 (감삼동) 3층 푸른신문 편집부 앞
E-mail:pr5726000@naver.com
➜ 응모엽서에 성명과 우편번호를 반드시 적어 주세요

▶정답자발표 : 1,148호

<가로열쇠>

1. 재산을 다 없애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가난뱅이가 된 사람. 그들은 집 한 칸도 없는 ○○○○였다.
3. 집이나 일정한 공간을 둘러막기 위하여 흙, 돌, 벽돌 따위로 쌓아 올린 것.
4. 방 안의 네 귀퉁이. 기방을 ○○○에 놓다.
6. 겉으로는 순해 보이나 속으로는 엉큼함. 내심 좋아하면서 관심 없는 척 ○○이다.
7. 귀, 코, 목구멍, 기관, 식도의 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의학 분야.
10. 청하는 일을 하도록 들어줌. 그는 부모님 ○○도 없이 장가를 들었다.
11. 말과 행동으로 위협하는 짓. 선생님의 말씀은 단순한 ○○○이 아니었던 것이다.
12. 한시에서, 사구를 구성하는 방법. 논설문 따위의 글을 짜임새 있게 짓는 형식.
14. 멀리 돌지 않고 가깝게 질러 통하는 길.
16. 몸의 무게.
17. 1968~1969년 카리브해 자메이카에서 발생한 새로운 대중음악. 전통적인 흑인 댄스뮤직에 미국의 솔뮤직(soul music: 靈歌調의 재즈음악) 등의 요소가 결들여 형성되었다.
18. 반사회적 인격장애증을 앓고 있는 사람. 평소에는 내부에 잠재되어 있다가 범행을 통하여서만 밖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한다.

<세로열쇠>

2. 털이 많이 난 사람이나 동물, 물건을 이르는 말. 나는 ○○○○ 강아지를 좋아한다.
3. 쓸개나 온쓸개관에 돌이 생겨 일어나는 병.
4. 학교에서 그날의 정해진 과업이나 과제를 끝낸 뒤, 학교에서 나는 매일 ○○○ 자습실에서 공부한다.
5. 손끝의 다섯 개로 갈라진 부분. 또는 그것 하나하나. 일을 많이 하여 ○○○ 마디가 굵어졌다.
8. 군사 시설이나 인원을 배치해 놓지 않은 곳을 통틀어 이르는 말.
9. 비닷바람에 말린 청어. 청어 대용으로 꽁치를 사용하기도 한다.
10. 조선 정조 때 박지원이 지은 한문 단편 소설. 당시 허약한 국가 경제를 비판하고, 양반의 무능과 허위의식을 풍자한 작품으로, '열하일기'의 '옥갑야화'에 실려 있다.
11. 달빛이나 불빛 따위가 침침하고 흐릿한 모양. 어둠 속에서 무엇인가가 ○○○○ 보였다.
13. 말을 탐. 사람이 말을 타고 여러 가지 동작을 함. 또는 그런 경기. 그는 ○○를 하다가 낙마하여 심하게 다쳤다.
15. 성이 나서 펄펄 뛰는 모양. 득점이 무효가 되자 팬들은 ○○○ 날뛰었다.
16. 체크무늬 판과 말을 이용하여 두 사람이 펼치는 게임. ○○라는 말은 '장군!(check)'이라는 의미의 프랑스 고어인 '에쉐(esches)'에서 유래했다.

998회 퍼즐 상품 받으실 분

※당첨상품은 우송해 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이용권 2매 ☎ 608-5000

자연속의 디지털 자동차극장 씨네80
지동차극장 관람권 1매 ☎ 984-8008
이홍섭(달서구 월배로) / 이현우(달서구 월성동)

미과 SPOLEX MIGWANGSPOLEX
고품격 휘트니스 클럽 스쿼시/헬스/골프/펜싱센/사우나
이용권 2매 ☎ 593-9990~8
이영우(달서구 성서로)

서지현(달서구 용산동)
박숙자(북구 오봉로)
권여민(달성군 다사읍)
김영현(동구 화랑로)
최순자(달서구 월배로)
이종현(달서구 감삼동)
배건후(북구 관음로)
최민영(달서구 선원로)

휴림원
이용권 2매 ☎ 585-0100
신주영(달서구 송현동)

문화상품권 5천원 1매

이동현(달서구 학산로)
최채령(수성구 지산로)
김남희(달성군 화원읍)
김동철(달서구 당산로)
이지우(달서구 감삼동)

<998회 정답>

황			허	수	아	비		구
빈	털	터	리			누	린	내
당			촘	사	위			식
	신			설		선	무	당
	꼭	두	각	시			더	
	대			조	무	래	기	
인	기	척			지			쪽
증			논	두	렁			방
제	왕	절	개		이	정	사	촌

♣ '가족과 함께 풀어보세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본사 편집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2월 8일까지 도착된 엽서 중에서 추첨을 통해 상품을 드립니다.

주소를 정확히 기재해 주십시오. 당첨상품을 우송해 드립니다.

푸른신문 www.prsinmun.co.kr
대표전화:(053) 572-6000 팩스:(053) 572-6006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323길 13(감삼동) 3F (우편번호: 42640)

▶등록일 2000년 10월 17일 ☑은행계좌완납
▶등록번호 대구 다01130
▶간별 수간
▶인쇄처 미디어프린팅넷(㈜)
대구은행 002-08-073862-4
국민은행 680-24-0070-047
농협 794-02-235282
▶발행인 조강래
▶편집인 조강래
예금주 : 푸른신문

본지는 주간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